

# 한우미당

CONTENTS Vol.224 2025.07



## 안내·소식

- 32 **성명서**  
‘한우법’ 이제는 본회의 통과로 응답하라!  
8만 한우인의 염원 ‘한우법’ 통과를  
뜨겁게 환영한다
- 34 **협회 활동 소식**

## 기획·특집

- 42 **기획**  
말레이시아 한우 쿠킹쇼-K-관광로드쇼  
한우, 말레이시아 미식 문화와 만나다
- 48 **특집**  
농협 사료값 인상 철회 촉구  
사료가격 비쌀 이유 없다!
- 56 **협회사업 안내**  
협회전용사료 「대한한우」 가격표  
직거래유통망 (이용도축/공판장 출하)

## 현장·탐방

- 60 **2024 우수지부**  
부산경남도지회 함안군지부 이홍섭 지부장
- 66 **2024 한우능력평가대회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상**  
민스타농장 박민규 대표
- 72 **업체탐방 - 주목! 이제품**  
(주)트리언인터내셔널 - 장기은 대표

## 오피니언

- 78 한우 사육기간 단축, ‘강행’보다 변화 ‘공감’부터  
정책지도국 김재광 과장
- 80 골치 아픈 송아지 설사,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소임상수의사회 김성기 회장
- 88 한우사육 100문100답
- 92 한우산업 주요통계

## 문화마당

- 102 걸릴 것 없고 탈도 없는 달  
윤달 이야기
- 106 구독안내



전국한우협회

성명서 2025.6.24.

## ‘한우법’ 이제는 본회의 통과로 응답하라!

한우법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바란다.

2025년 6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우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지난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1년 만의 일이며, 이는 전국의 한우농가가 수년간 염원해온 결실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다.

한우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법이 아니다. FTA 관세철폐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무방비 상태의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조치이다. 법안에는 세계유일의 한우 유전자 보호,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시행계획 수립, 한우 수급 중장기 정책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구성, 한우 경영비 부담 완화, 한우 소비 목표량 설정, 한우농가 탄소저감 촉진,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기업의 생산참여 제한 등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영위를 위한 구체적인 체계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다.

현재, 한우농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024년 통계청에 따르면 한우 1두당 순수익은 -161만원,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농협은 사료값과 도축수수료를 인상하며 농가의 숨통을 조이고 있고, 미국은 30개월령 소고기 수입 장벽 철폐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한우법의 상임위 통과는 전국의 한우농가들에게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심어주었다.

한우산업의 미래와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선 지금은 한우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입법취지와 여야 합의처리를 존중하며 한우법 제정으로 입장을 전향하였고, 국회 상임위에서도 여야 이견없이 합의로 통과된 만큼 전국의 8만 한우농가들은 향후 조속한 입법 절차 및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바란다. 한우법 발의 및 의결에 동참해준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드린다.



전국한우협회  
HANWOO ASSOCIATION



성명서 2025.7.3.

## 8만 한우인의 염원 ‘한우법’ 통과를 뜨겁게 환영한다

시행령·시행규칙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반드시 담기길 기대한다.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 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尹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무더기 폐업과 빚더미 농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값 받는 한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이제 법이 제정된 만큼,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그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아내야 한다. 한우 유전자 보호와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 한우 수급 안정 및 종장기 정책 수립,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정책적 지원, 탄소저감 촉진 인센티브, 한우 소비 목표량 설정 및 유통구조 개선, 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참여 제한 등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원체계를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아 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완성해 주길 바란다.



전국한우협회  
HANWOO ASSOCIATION

# HANWOC NEWS

## 6월 주요 소식-활동

5월

대구경북도지회 연석회의  
참석(청도)

10월

공영홈쇼핑 촬영

10월

고령공판장 도축비 인상  
항의 방문



11월

농협사료 사료값 인상  
항의 방문

'25년 환율 하락세  
사료값 왜오르나  
한우농가 다죽는다

농협 공판장 도축비  
1년새 21% 폭등!  
농협 규탄한다

17일

제3차 회장단 회의



18일

중앙회 인사위원회  
신입직원 채용 면접



19일

한국농어촌공사 농민단체장  
간담회 참석



30일

한미 관세조치 협의 공청회 참석



## 대구경북도지회, 농협 도축비 인상에 강력 항의 “1년 만에 또 인상…농가 고통 외면 처사”

고령축산물공판장 방문



대구경북도지회는 농협 고령축산물 공판장의 도축수수료 인상에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대구경북도지회(지회장 장성대)는 지난 6월 10일 오전 11시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6월 1일부터 단행된 도축수수료 1만원 인상에 대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장성대 경북도지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감사, 시군지부장 등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농협 측에서는 윤용섭 농협축산물 도매분사장과 김성수 고령축산물공판장장이 직접 자리에 나와 협회의 요구사항을 경청했다.

특히 농협은 작년 5월에도 공판장 도축수수료를 2만원 인상한 바 있어, 1년 만에 또다시 수수료가 인상되자 농가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대구경북도지회는 이번 방문에서 ▲도축수수료 인상 철회 ▲상장수수료 수익 등 자구노력을 통한 공판장 수익 확보 ▲도축장 전기세 인상분 추경 지원 시 즉시 도축수수료 인하 ▲계류장, 부산물 가격, 긴급도축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 등 4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장성대 경북도지회장은 “작년에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은 농가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며 “공판장이 수익만 좇지 말고 출하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설 보수와 계류장 확대 등에 투자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함께 참석한 지부장들도 “도축장 전기 세 인상분이 추경으로 지원될 경우 즉시 도축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촉구하며, 계류장과 부산물 가격, 긴급도축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경북도지회는 작년 5월 도축수수료 2만원 인상 당시 경북도청에 40억원 예산을 요구해 농가 지원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를 통해 경북도내 한우농가는 두당 2만원씩 최대 20만두(약 40억원 상당)까지 도축 수수료 전액을 지원받는 정책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경북도지회 관계자는 “농협이 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수익만 추구하는 것은 농협 본연의 역할에 어긋난다”며 “실질적인 농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경북도지회, 농협사료 가격인상에 강력 항의 “사료값 인상 철회하라”

농협사료 경북지사 방문해 요구사항 전달



대구경북도지회가 농협사료의 사료가격 인상에 강력히 항의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경북도지회는 지난 6월 11일 오전 11시 농협사료 경북지사를 방문해 최근 단행된 사료가격 kg당 13원 인상 조치에 대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장성대 경북도지회장을 비롯

## 6월 주요 소식·활동

해 부회장, 감사, 시군지부장 등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농협사료 측에서는 정종대 농협사료 대표이사와 이종일 농협사료 경북지사장이 직접 자리에 나와 협회의 요구사항을 경청했다.

대구경북도지회는 이번 방문에서 ▲사료가격 인상 철회 ▲사료운영협의체 구성 ▲사료안정기금 제도 마련 ▲사료지대 CP표시 시행 등 4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협회는 현재 시행 중인 kg당 13원 인상 조치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농가와 농협 사료 간 상시 소통 체계 구축을 위한 사료운영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료가격 급등 시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정화 장치로 사료안정기금 제도 마련과 사료 성분 투명성 확보를 통한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지대 CP표시 시행을 촉구했다.

정종대 농협사료 대표이사는 “협회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장성대 경북도지회장은 “한우농가와의 소통 협력 강화 및 농가 수익성을 고려한 가격 정책 수립 등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성대 지회장은 앞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경북도에 사료구매자금 이자와 도축 수수료 지원을 적극 건의해 관철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내 한우농가는 납부한 사료구매자금 대출 이자 1.8% 중 기 납부한 1%에 해당하는 총 29억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며, 두당 2만원씩 최대 20만두(약 40억원 상당)까지 도축 수수료 전액을 지원받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경북도지회 임원들은 “농협에서도 이와 같은 농가 실질적인 부담 완화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한미 관세협의를 공청회에서 피켓시위

공청회 후 대통령실 방문

농가 생존권 위협 우려 표명, 정부 “국민 우려 고려해 협상”



우리 협회는 지난 6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한미 관세협의를 관련 공청회’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공청회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더 이상의 소고기 수입 확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양수 부회장, 정윤섭 전북도지회장, 윤순성 광주전남도지회장,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 등 한우협회 회장단과 협회 및 한우자조금 직원들은 공청회 시작 전 회의실 입구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사반대’, ‘식량안보와 국민 건강은 협상 대상 아니다’라는 피켓시위를 벌이며 한우농가의 뜻을 전달했다. 박종원 산자부 통상차관보는 “국민주권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관세협상을 위해 통상조약법상 국내 절차를 거치고 범부처가 합심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성길 산자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 내에서도 모든 이해관계자가 30개월령 이상 수출금지 철

## 6월 주요 소식-활동

폐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에 유의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장 국장은 또한 "현재 30개월령 제한이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을 높여 국내 소고기 소비시장에서 미국산의 점유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30개월령 이상 소

고기가 수입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짙어지면 전체적인 미국산 소고기의 소비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입완화를 방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FTA 체결국인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로 인해 특혜를 상실했다"며 정부의 관세 협상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 원장은 "이번 협상에서 농업계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경천 회장은 공개 질의를 통해 "농업의 민감성, 특수성을 감안한 협상 전략 등 정부 측 입장을 반드시 사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한우협회 회장단들은 대통령실로 이동해 한우농가 호소문을 전달했다.

정부 측은 협상 종료 시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농업 분야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7월 22일 농협 규탄 1만 농가 집회 추진 “농협 사료·도축비 인상 철회하라”

전국한우협회가 농협의 사료가격과 도축수수료 동시 인상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1만 농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서초동 축산회관에서 2025년 제 3차 회장단 회의를 열고, 오는 7월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생산비 및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대통령 호소’ 집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농협이 5월말과 6월초 연달아 진행한 사료가격 kg당 13원 인상과 도축수수료 인상에 대한 항의 및 철회 요구를 위한 것이다. 여기에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수입제한 철폐 결사 반대와 한우농가 안정방안 마련 촉구도 함께 진행된다.

한우협회는 농협의 사료값 및 도축비 인상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지준섭 농협 부회장과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 정종대 농협사료 사장 등을 면담해 사료값 및 도축비 인상 철회와 함께 사료 조정·발전 협의회 구성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어 5월 29일에는 ‘사료값·도축비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농협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우리 협회는 농협의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가격을 내리겠다’는 고정된 입장에 대해 현재의 환율·원료가격 하락세를 언급하며 인하요인이 충분한 만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6월 주요 소식-활동

는 공통 의견을 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월 초 근래 처음으로 1400원선이 무너진 이래 현재 1360원대까지 하락한 상태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이번 집회는 새정부 들어선 이후 1호 농민 집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의 실제 수입을 추진하기 전에 압박하고, 이를 통해 최종 심의기관인 국회에 농민의 뜻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 회장은 "정부와 농협이 대승적 결단으로 사료가격 인하 등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방안에 앞장선다면 집회 개최는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여 협상 여지를 남겼다.

이번 집회에서 한우협회는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농협의 비용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대응과 관련해 정부에 한우산업 안정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농협은 5월 29일자로 kg당 13원의 가격을 인상하면서 추후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가격 인하를 통해 상생경영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향후 농협의 사료가격 인하 등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 방안이 마련될 경우 집회가 취소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 사료로 돈 벌어  
농협 계열사 살릴 때  
한우농가는 무너졌다**  
(2년새 1만호 감소)

환율 **상승**때도 사료값 **인상**  
환율 **하락**에도 사료값 **인상**  
**농가가 봉이나?**

**농가 고통전담** 시키는  
**가짜농협** 규탄한다!

전국한우협회

**농협은 돈벌이 혈안  
농민은 줄줄이 폐업  
협동조합 정신 어디에?**

<강호동 100대 공약단>  
**농가 소득** 올려준다더니  
**사료값 인상! 도축비 인상!**  
**생산비만 올리는**  
**농협 중앙회장 각성하라!**

전국한우협회

말레이시아 한우 쿡킹쇼-K-관광로드쇼

## 한우, 말레이시아 미식 문화와 만나다

쿡킹쇼부터 K-관광로드쇼까지  
프리미엄 한우, 글로벌 식탁 향한 도약



손종원 셰프의 숯불 퍼포먼스와 함께한 특별한 한우 미식 체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식재료, 한우가 말레이시아에서 연이어 열린 두 개의 글로벌 행사에서 현지 소비자와 외식업계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K-푸드’의 격을 높였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우 쿡킹쇼를, 이어 6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대형 쇼핑몰에서 K-관광로드쇼를 운영하며 한우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현지에 널리 알렸다.



## 프리미엄 한우의 가치, 미슐랭 셰프가 말한다 “한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한국인의 자부심”

‘2025 한우 쿠킹쇼(The Taste of Korea’s Finest, HANWOO)’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최초의 한우 쿠킹 이벤트로, ‘K-컬처 페스티벌 2025’ 공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우자조금이 주관하고,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aT 쿠알라룸푸르지사가 협력한 이번 행사에는 외식·유통업계 관계자,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대거 참석해 한우의 세계화를 향한 발걸음에 주목했다.



‘진심을 담은 음식’ 주제로 한우 요리 시연중인 미슐랭 손종원 셰프

민경천 회장(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이 손종원 셰프와 함께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한우의 가치와 활랄 인증 의미 강조하고 있는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





특히 미슐랭 1스타 셰프 손종원이 현지에서 직접 한우 요리를 시연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한우 타르 타르, 육회 비빔밥, 된장 양념 한우 구이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른 메뉴 구성에 더해, 숯불과 볶짚을 활용한 퍼포먼스는 한우 특유의 감칠맛을 극대화하며 현장을 사로잡았다.



#### 말레이시아 소비자와의 첫 만남

“한우, 처음이지만 다시 찾고 싶은 맛”



쿠��쇼에 이어 6월 12일부터 4일간 열린 ‘2025 K-관광로드쇼’에서는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한우 홍보 활동이 펼쳐졌다. 쿠알라룸푸르의 대표 복합쇼핑몰 ‘원우타마 쇼핑센터(1 Utama)’에 마련된 ‘K-FOOD존’에서, 한우자조금은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며 한우 불고기 시식 행사와 즉석 복권 이벤트를 통해 현지 소비자의 발길을 끌었다.

SNS 인증 이벤트와 연계된 참여 방식은 자연





방문객들에게 한우 불고기 시식행사를 하고 있는 민경천 회장



한우자조금 홍보 부스 방문객들의 한우 시식

스려운 온라인 확산 효과를 이끌었고, 행사 기간 동안 약 3,000명이 부스를 방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배포된 브로슈어에는 한우의 생산 시스템, 품질 관리 체계, 말레이시아 내 할랄 인증 판매처 정보 등이 담겨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 숫자로 보는 현장 반응

#### “시식·체험 통해 한우 매력 확인”

현장 설문조사 결과, 방문자의 85.3%가 행사에 만족했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만족 요인은 한우 불



방문자 85.3%  
행사 만족도

인지도 제고 위한  
꾸준한 노력 필요



66

한우는 단순한 식재료 아닌  
오랜 전통과 정성 깃든 한국 소울푸드

99



고기 시식(54.2%)과 경품 이벤트(33.8%)였다. 한우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3.3%에 불과해, 여전히 인지도 제고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우가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는 시작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시에, 실제 체험과 시식을 통해 충분히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쟁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 “한우, 세계인의 식탁으로”

### 품질·신뢰 기반한 글로벌 전략 추진

민경천 회장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자격으로 현지로 떠나 현장을 살폈다. 해외 소비자들에게 “한우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오랜 전통과 정성이 깃든 한국의 소울푸드”라며, “앞으로도 각국의 문화와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한우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말레이시아 행사는 한우가 최초로 무슬림 국가에서 정식 홍보 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2023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한우는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 상태다. 향후 지속적인 현지화 전략과 소비자 접점 확대를 통해, 한우가 K-푸드를 대표하는 핵심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한우자조금의 수출 노력이 주목된다.



국제곡물 가격 하락 × 달러 환율 하락

## 사료가격 비쌀 이유 없다



미국 농무부(USDA)가 지난 5월 발표한 주요 곡물 전망에 따르면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사상 최대로 전망되고 있다.

옥수수 소비도 사상 최고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USDA는 사료용 옥수수 소비가 공급 증가와 예상 시세가 하락해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곡물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 쏟아지는 가운데 1,5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환율도 지난 6월 25일 기준 1,382원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달러약세가 더욱 짊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국내 정세 안정으로 원달러환율도 보다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사료가격을 결정하는 국제곡물가격과 달러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사료가격이 비쌀 이유가 없다.



## 세계 옥수수 생산량 사상 최대

### 12억6,500만톤 예상

USDA는 2025~2026년 세계 옥수수 생산은 사상 최대인 12억6,500만톤으로 예상했다. 옥수수 주 생산지인 미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와 아르헨티나가 가장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작황 부진을 이들 주생산지의 생산량 증가가 상쇄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 증가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미국은 옥수수 재배면적과 수율 모두 증가하면서 지난해보다 6% 가량 늘어난 4억185만톤의 옥수수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재배면적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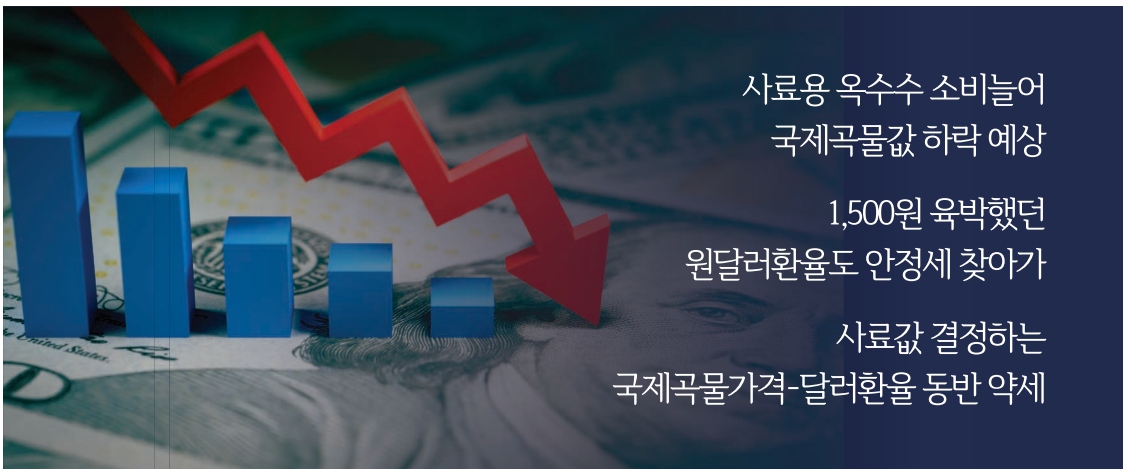
세계 옥수수 소비도 2% 늘어난 12억7,400만톤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사상최고치로 2년 연속 소비가 생산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미국 농무부,  
세계 옥수수 생산량  
‘사상 최대’ 전망



**12억6,500만톤 예상**



## 선물가격 동향

	옥수수		대 두		대두박(US\$/ST)	
선물 (US\$/bu)	'25.7월물	4.1625	'25.7월물	10.4675	'25.7월물	280.5000
	9월물	4.1225	8월물	10.5025	8월물	284.8000
현물 (US\$/MT)	PNW	228.78	GULF	465.15	GULF	365.53
	GULF	246.05				
선임 (US\$/MT)	PNW	23.18				
	GULF	51.08				



※ 현물가격은 선적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C&F가격임.

미국 옥수수 총소비는 국내 소비와 수출 증가로 지난해보다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탄올 등 바이오연료용 옥수수가 사용은 지난해와 비슷한 대신 사료 소비가 공급 증가와 시세 하락으로 380만 톤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 국제곡물시장

### 옥수수·대두 선물 가격 하락

실제로 옥수수와 대두의 국제곡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24일 기준 옥수수 가격은 풍부한 공급 전망에 하락했고 대두 가격은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소식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및 양호한 작황 전망에 하락했다.

옥수수 7월 선물 가격은 지난 6월 24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3센트 하락해 부셸 당 4.1625달러로 마감됐다. 옥수수 가격은 미국 GTE비율(파종면적 중 농작물의 상태가 우수 또는 매우 우수한 파종면적 비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공급 전망에 하락하고 있다. USDA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기준 미국 옥수수 GTE 비율은 전주 대비 2% 하락한 70%로 나타났다.

실제로 GTE비율이 하락했지만 동기간 5년 평균치인 64.6%보다는 크게 상회하



고 있어 미국 작황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실효과와 같은 환경이 조성, 미국 콘벨트 지역 작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대두 가격도 하락세다. 11월물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1.75센트 하락해 부셸당 10.3700달러로 마감됐다. 대두박 7월물 가격도 전 거래일보다 1.9달러 하락해 톤당 280.5달러로 마감됐다. 대두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양호한 미국 작황 전망에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을 종식시키는 휴전협정을 중재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한 상황이다. 미국 농부들에 따르면 미국 대두 작황은 매우 좋은 상황으로 올해도 풍작이 예상되고 있다.

### 달러, 환율 하락세 짙어

지난 6월 26일 기준 달러환율은 1,358원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선언 이후 더욱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세다. 지난



협회 OEM사료 배합비 상위 주요 수입원료에 대한 가격 비교

(단위: 원)

구분	'24.3Q	'24.4Q(A)	'25.1Q	'25.5월	'25.7월	증감(B-A)
옥수수	372	365	372	375	374	9
소맥피	331	336	362	311	310	-26
단백피	346	308	307	312	300	-8
야자박	405	375	314	310	271	-104
팜박	280	243	245	240	233	-10
평균	347	325	320	310	298	-27.8

\* 주요 수입 원료 검토(배합비 상위 원료(5))





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한때 1,500원을 육박했던 달러 환율은 대통령 선거 이후 급격히 안정세를 찾아 6월 이후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휴전 후 위험선호 심리 회복과 미 연준 파월 의장의 통화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적' 발언에 글로벌 증시가 안도하면서 더욱 안정세를 찾는 모양새다.

특히 세계경제 전문가들이 달러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준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사실상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달러환율 안정세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료용 원료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해상 운임은 세계적으로 상승 기조가 예상된 바 있지만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 해상운임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주로 곡물을 수입하는 미주 노선은 선사와 포워더가 선복 공급 증가로 운임 하락을 예측하고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전문가는 “지난해 달러환율 강세로 곡물 수입 원료를 쓰는 배합사료 업체들의 적자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국제곡물 가격이 하락하고 달러환율

협회·농협사료의 가격 변동 유무

(단위: 원)

구분	'24.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협회사료	·	-8	-11	-4	+4	·	+5	-5	·	·	-4	-4
농협사료	-20	·	·	·	·	·	·	·	·	+1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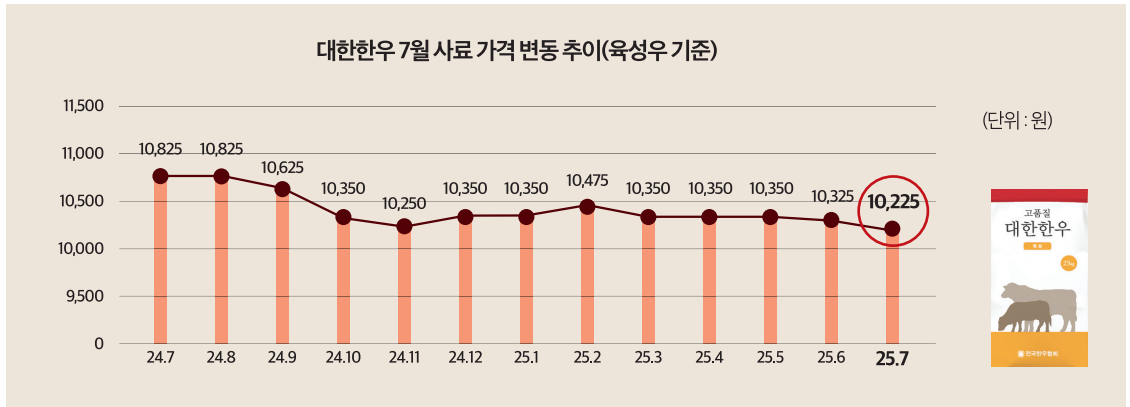
※ 협회사료의 경우 6월 -4원에 이어, 7월에도 -4원 사료가격 인하 예정

협회·축협사료의 가격 단가 비교(판매가 기준(운송·수수료 포함))

(단위: 원)

구분	육성우	큰소전기	큰소후기	번식우	어린송아지
협회사료	11,250	11,450	11,575	11,025	14,750
축협사료	13,010	13,110	13,110	13,040	15,920

※ 사료 평균 약 1,628원 차이 발생



이 안정되고 있어 사료원료 가격 하락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앙회의 배합비 상위 주요 수입 원료에 대한 가격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사료가격 인하요인은 충분한 상황이다. 배합비에 따른 비율은 상이할 수 있지만 전체 배합사료의 상위원료 5개의 단가를 비교·평가한 결과 지난해 4분기 대비 인하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의 분석결과 배합사료내 옥수수의 비중이 40%이상이고 그 외 상위 원료의 비중이 10%내외인 것을 감안한 경우에도 10원의 인하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지도국 오경재 차장은 “주요 곡물의 선물가격 검토결과, 옥수수의 경우 수입되는 시점(2~3개월)을 고려할 경우 7월 이후 수입되는 해외 옥수수의 가격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원료가격 등을 시세에 바로 반영하는 협회 OEM 대한한우사료의 경우 6월 4원을 내린데 이어 7월에도 4원의 추가적인 사료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협회사료 6월 4원 인하이어  
7월 4원 추가인하 결정

농협 사료값 오히려  
선제적 인하해야 할 시점





## 농협사료 경북지사 항의 방문 사료값 인상 농가 부담 가중

이같은 이유로 농협 사료값 인상에 대한 한우농가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경북도지회(지회장 장성대)는 지난 6월 11일 농협사료 경북지사를 방문해 사료값 인상과 관련 농가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협사료 경북지사를 방문한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과 임원들은 지난 5월 29일부터 시행된 사료가격 kg당 13원 인상에 대해 항의했다.

정종대 농협사료 대표이사와 이종일 농협사료 경북지사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한우협회 대구경북

도지회는 △사료가격 인상 철회 △사료 운영협의체 구성을 통한 상시 소통 체계 구축 △사료안정기금 제도 마련 △사료 지대 단백질함량(CP)표시 시행에 따른 품질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농가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장 지회장은 “대구경북도지회의 건의로 경북도는 총 29억 원 상당의 한우농가 대상 사료구매자금 대출 이자 1% 지원과 총 40억 원 상당의 도축 수수료 마리당 2만 원씩 최대 20만 마리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경북도처럼 농협에서도 농가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하며 일방적인 인상이 아닌 농가와와의 진정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5월 29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열린 사료값 도축비 인상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함께 참석한 경북지역의 지부장들도 “농협이 수익만 좇지 말고 출하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설 투자와 소통 강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민경천 중앙회장은 “새 정부 출범 초기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것이 마음이 무겁지만 농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농협이 상생 방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농사일을 제쳐두고 서울 집회에 나서 국민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농협중앙회 앞 기자회견에서도 협회는 “농협이 가격인상을 철회하거나 다시 인하조치를 하지 않으면 7월중 한우농가 1만명 농협규탄대회를 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회 대구경남도지회,  
농협사료 경남지사 항의 방문

농협조직 이익만 쫓고  
한우농가 생존권 외면

일방적 인상 아닌 농가와  
상생방안 모색 주문



품질만족&가격만족! 한우농가가 직접 생산하는  
농가생산비 절감 및 가격표준 역할!!

# 전국한우협회 고품질 대한한우 사료



## ◆ 대한한우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

비육 구분		어린송아지		육성기							비 고	
급여사료명		대한한우 어린송아지		대한한우 육성								
생후 월령		6	7	8	9	10	11	12	13	14	15	출하월령 30개월 이상
체중 [kg]		200	220	240	260	285	310	335	360	390	420	출하체중 810kg 이상
일당증체량 [kg]		0.8		0.8 - 1.0							0.88 kg	
조사료	건초	2.0	2.0	자유채식							[기타관리] ■ 비육축진제, 항생제 사용안함 ■ 비육마무리 단계 -개체별 발육 차이를 고려해 출하시기 조절 ■ 애정(사랑) 가득한 사양 관리 요망	
	볏짚											
배합사료 급여량		3.0	4.0	4.0	4.0	4.5	4.5	5.0	5.5	6.0	7.0	
단계별 사양관리 주의점		■ 설사 및 호흡기 예방		■ 가능하면 건초 자유급여 ■ 반추위와 소화기관 발달시켜 튼튼한 비육밀소를 만들 (기초체형 형성)								
중요 포인트		■ 구충 버짐		■ 거세실시   ■ 음수조 철저 관리   ■ 미네랄 블록 급여								

비육 구분		비육전기								비육후기								비 고
급여사료명		대한한우 전기								대한한우 후기								
생후 월령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출하월령 30개월 이상	
체중 (kg)		450	480	510	540	570	600	630	660	690	715	740	760	780	795	810	출하체중 810kg 이상	
일당증체량 (kg)		1.0 - 1.2								0.6 - 0.8								0.88 kg
조사료	건초	2.0	2.0	1.0													[기타관리] ■ 비육축진제, 항생제 사용안함 ■ 비육마무리 단계 -개체별 발육 차이를 고려해 출하시기 조절 ■ 애정(사랑) 가득한 사양 관리 요망	
	볏짚	1.0	1.0	1.0	2.0	2.0	2.0	2.0	2.0	1.5	1.5	1.5	1.5	1.5	1.5	1.5		
배합사료 급여량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5	9.5	9.0	9.0	8.5	8.0		
단계별 사양관리 주의점		■ 체성장 발달이 왕성한 시기로 충분한 사료급여에 의하여 골격과 근육성장이 충분히 발달되도록 하는 시기 ■ 사료는 영양균형에 맞추어 정확히 급여 ■ 근육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근간지방 최고, 피하지방 부착이 만들어지는 시기								■ 피하지방 최고, 근육내 지방부착 되어 지방교집이 이루어져 육질이 마무리 되는 시기 ■ 육색과 지방색을 위하여 녹색건초나 청초급여 금지 ■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								
중요 포인트		■ 우사내 환기 관리   ■ 요결석 관찰 ■ 여름철 그늘막 설치 및 선풍기 가동								■ 생후 24개월령에 1차 초음파 측정 출하 2개월전에 2차 초음파 측정 (육량과 육질 조절)								

## ◆ 대한한우 번식우 사양관리 프로그램

사육구분		번식우육성 (반추위, 소화기관 완성기)						임신우														포유우
월령 (개월)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경산우										포유중
체중 (kg)		190	210	230	250	270	285	300	315	330	345	365	385	405	420	435	450	465	480	500	520	
일당증체량 (kg)		0.6 - 0.8						0.4 - 0.6														0.6
1일 사료 급여량 (kg)	구분	번식용 중송아지						임신우														임신우
	배합	3 - 4 kg						3 - 4 kg														4 - 5 kg
	조사료	조사료는 자유채식 (가능하면 양질의 조사료 급여)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증감 요인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 10%정도 증가시켜 줄 것 임신 7개월부터 10% 증가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단계별 사양관리 주의점		■ 소화기와 반추위 등을 발달시켜 튼튼한 밀소를 만들						■ 발정과 수정율을 높이기 위하여 생식기에 지방 침착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체적으로 과비가 되지 않도록 운동을 충분히 시키며 영양의 불균형이 없도록 할 것. ■ 임신초기에 영양균형을 맞추어 주면 송아지때 설사를 방지할 수 있음						■ 다음 발정과 수정을 위하여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급여할 것		

## 대한한우 어린송아지

### 적용범위

2개월~7개월

- 미아리산과 탄닌 함유에 의한 고창증과 설사 예방
- 천연물질에 의한 항병력 강화
- 반추미생물과 효모제 강화
- 식이섬유와 비타민/미네랄 강화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
- 대용유함유에 의한 빠른 입블이기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TDN
어린송아지	20.0	2.5	20.0	10.0	0.9	1.5	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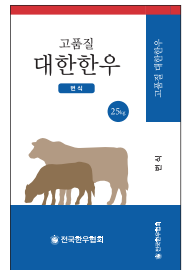
## 대한한우 번식우

### 적용범위

13개월~임신우

- 발정과 수태율 최적화를 위한 충분한 영양소 공급
- 번식전용 비타민/미네랄 설계
- 황토급여에 의한 미네랄 보충
-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TDN
번식우	14.0	2.0	15.0	15.0	0.8	1.2	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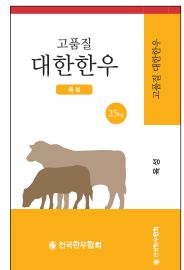
## 대한한우 육성기

### 적용범위

8개월~15개월

-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골격과 내장의 발달을 촉진
- 적정에너지 공급
- 섬유소 공급에 의한 반추위와 소화기관 안정화
- 높은 수준의 비타민과 균형 있는 미네랄 공급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TDN
육성기	15.0	2.5	20.0	15.0	0.7	1.2	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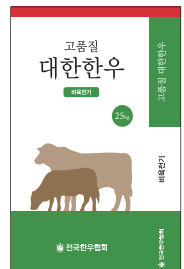
## 대한한우 비육전기

### 적용범위

16개월~23개월

- 반추위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 최대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 향상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 비육효과를 최대로 발현시키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필요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TDN
비육전기	13.0	2.5	20.0	15.0	0.7	1.2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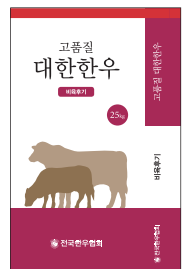
## 대한한우 비육후기

### 적용범위

24개월~30개월

- 근육내 지방 발달 극대화육 육질 향상
- 단백질과 에너지의 균형 있는 배합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 고급육 효과를 최대 발현시키기 위하여 TDN을 높여 줌
-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을 향상
- 과비방지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TDN
비육후기	12.0	2.5	20.0	15.0	0.7	1.2	75.0



전국한우협회

문의처 : 02-525-1053 팩스 : 02-525-1054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9, 제2축산회관 2층

생산비 절감 / 사료가격 투명화 / 고품질 합리적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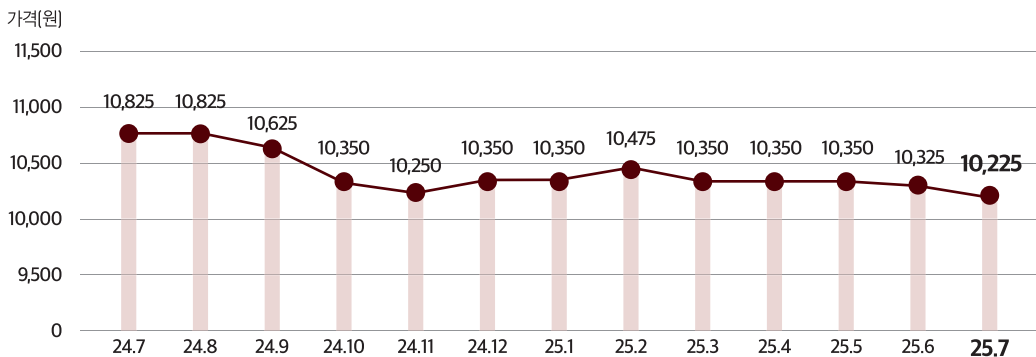
# 협회 전용사료 '대한한우'

2025년 7월 대한한우 사료 가격 안내

공장출고가 기준(운송비 등 추가비용 미반영)

 <p>대한한우 어린송아지사료 2-6개월 25kg</p>	 <p>고품질 대한한우 번식 25kg</p>	 <p>고품질 대한한우 육성 25kg</p>	 <p>고품질 대한한우 비육전기 25kg</p>	 <p>고품질 대한한우 비육후기 25kg</p>
어린송아지	번식우	육성	비육전기	비육후기
13,600 벌크(kg/원) 526	10,000 벌크(kg/원) 381	10,225 벌크(kg/원) 390	10,425 벌크(kg/원) 398	10,550 벌크(kg/원) 403

대한한우 사료 가격 변동 추이 (육성우 기준)



※ OEM 생산 협회전용사료는 환율 및 곡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매일 1일 기준가격이 변동됩니다.





# 전국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 농가가 원하는 적기 출하
- 경매 상장 수수료 無
- 운송비 절감
- 하자육 발생시 농가 손실 방지제도 운영



• 한 차(8두 기준) 출하, 100만원 이상 이득 ⇒ **농가수익개선**

전국한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유통망은 부산물 제값받기와 적기출하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한우협회 전용 도축유통망입니다.  
경매 상장수수료가 없고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영안정에 유익합니다.

## ◆ 출하 신청방법 (☎ 02-525-1053)

- 담당 : 유통사업국 김수현 주임(내선 215)
- 시기 : 출하 계획 14일~30일전 협회로 신청
- 접수 : 중앙회 담당직원 연락 또는 시군지부 접수
- 팩스 : 02-525-1054



## ◆ 정산기준

구분	거세우	암소	비고
출하규격 (지육중량)	27개월령 이상 36개월령 이하 380kg이상 600kg이하	26개월령 이상 60개월령 이하 300kg이상 550kg 이하	※ 등심단면적 기준 (거세) 86cm <sup>2</sup> 이상 110cm <sup>2</sup> 이하 (암소) 76cm <sup>2</sup> 이상 100cm <sup>2</sup> 이하
가격적용 기준	농협 음성공판장 화,수,목,금 평균가	음성공판장 화,수,목 평균가	
부산물	두·내장·우족은 농협 음성공판장 가격 적용		우피는 당해 도축장 가격에 따름
하자육 처리	근출혈 보상보험 두당 8,500원		하자육 금액이 kg당 1,000원 이상으로 발생시 일부 자부담 발생
출하장려금	(거세, 두당 7만원) 도체중 420kg~560kg이하, 월령 30~34개월이하, 등심단면적 86cm <sup>2</sup> 이상 (암소, 두당 12만원) 도체중 350kg~550kg이하, 월령 28~60개월이하, 등심단면적 76cm <sup>2</sup> 이상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 한우산업 발전-한우농가 권익보호 선봉에 서는 '작지만 강한 지부'

부산경남도지회 함안군지부  
이홍섭 지부장



회원농가 단합...응집력 강화 중요  
중앙회-부산경남도지회와 협력에 솔선



(사)전국한우협회 함안군지부  
**우수지부 선정**

전국한우협회  
함안군지부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전국의 한우인 1만2천여명이 모인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의 현장에 한우를 끌고 올라간 곳이 바로 함안군지부이다.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 관할 시군지부 중에 작지만 강한 함안군지부의 수장을 맡고 있는 이홍섭 지부장은 과묵하고 사람 좋아 보이는 모습과 달리 한우농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면 선봉장으로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이지

만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운동가를 자처하며 협회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앞장서겠다고 힘줘 말한다.

뜨거웠던 지난 여름, 아스팔트 위에서 한우농가들의 울부짖음에 제일 먼저, 제일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던 그를 만나 봤다.

### ‘한우협회가 하는 일 우선’ 철칙

#### 부산경남도지회 ‘돌격부대’ 역할

지난해 전국한우협회 우수지부로 선정된 이유를 묻자 모르겠다고 답하는 사람.

“그저 협회가 하는 일에 앞장서고 협회를 믿고 따랐던 것을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부라면 당연히 중앙회가 하는 일을 믿고 따르고 열심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함안군지부는 협회가 결정하는 사안들에 참여도가 가장 우수한 지부 중 하나다.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부산경남도지회의 사업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 부산경남도지회의 돌격부대로 불릴 정도다.

그 적극성이 제일 돋보였던 것은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우반납투쟁에서

였다.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을 전달하려고 집회를 한다는데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지부지만 어렵게 재원을 모아 버스 두 대를 대절했고 너나 할 것 없이 버스에 올라타고 여의도 집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한우농가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집회 현장에 실제로 소를 끌고 가자는 의견이 나왔고 일체의 주저함 없이 다른 지부보다 먼저 함안군지부가 소 차를 끌고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나섰다.

“지부의 회원농가 한 분이 소 차를 끌고 서울로 가겠다고 나섰고, 함안군지부의 소가 가장 먼저 서울에 당도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저지로 여의도까지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함안군지부 한우농가의 기개가 서울에 제일 먼저 닿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여의도 집회 현장에서 함안군지부 농가들이 앞장서서 뜨거운 아스팔트 위의 농성을 펼쳤다.

“회원 농가가 앞장서는데 지부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함안군지부 회원농가 모두 협회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앞장섭니다. ‘함안군지부는 협회의 일이 제일 먼저다’라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농업경영인 출신 농민운동가

### 이제는 한우농가 위해 봉사

회원농가의 기개라고 추켜 세우지만 사실 그는 오래도록 농민운동을 해온 운동가다. 소를 키우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농민집회를 도맡아 가며 해 왔다.

“처음 소를 키우기 시작했을 때에는 제가 젊은 편에 속했습니다. 수도작을 함께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농업경영인회에서 일을 하면서 지역 회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농업 농촌에 굶직한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각종 집회에 참석하면서 이왕이면 앞장서서 열심히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쌀문제나 농축협 통폐합 반대 운동이 있을 때마다 함안 농민들은 집회의 선봉에 섰다.

“한번은 한강에서 국회의사당까지 걸어가면서 집회에 참여했는데 동네의 형님 한 분이 진압대에게 최루탄을 맞았습니다. 그 정도로 함안 농가들이 적극적이었습니다. 제일 앞에

이홍섭 함안군지부장이 2024 우수지부로 선정돼 수상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셨고 실천적인 운동가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도 한우집회가 있을 때마다 회원농가들에게 서울까지 가기를 부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집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인원 동원을 부탁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의도 집회처럼 소 차를 끌고 가겠다고 출선수범 해주는 농가들이 계십니다. 그런 응집력이 있는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한우협회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 그렇게 참여합니다.” 이홍섭 지부장의 또 다른 눈에 띄는 이력은 형제 지부장이라는 것이다.

“2013년도 함안군지부를 이끌었던 이종섭 지부장이 바로 위 형님이세요. 그때는 회원 농가의 한사람으로 열심히 협회 일에 참여했죠. 지난해 지부장 선거에서 한우를 키우는 사촌 형님을 비롯해 주위에서 어려운 때 나서서 함안 농가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권유가 많았습니다. 여러번 마다하다가 지부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니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집회나 협회 일에 더욱 열심히 동참했습니다.”

### 아시랑보리한우·개량번식연구회와 함께 함안지역 한우산업 발전 노력

함안군에는 총 383개의 한우농가에서 1만 3,402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이중 지



방역약품, 부재료, 톱밥 등  
함안군사업 대행

회원농가 규합  
중앙회 추진사업 적극 동참



이홍섭 함안군지부장과  
함안군지부의 살림꾼  
조성민 실장(사진 오른쪽)





지부라면 당연히 중앙회가 하는 일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이홍섭 지부장은 부산경남도지회 사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한기웅 부산경남도지회장

‘아시랑 보리한우’ 분과  
개량번식연구회 활동

함안군 관내 송아지  
타지역보다 자질 우수

부의 회원농가는 160농가 정도로 함안군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진성회원들이 대부분이다.

부산경남도지회에서 그리 크지 않은 함안군지부지만 지부 산하에 함안군 한우브랜드인 ‘아시랑 보리한우’ 분과와 개량번식연구회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아시랑 보리한우는 함안군 한우브랜드이니

다. 원래 한우협회에 속해 있지 않던 별도 단체였는데 지부 산하로 들어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으로 다양한 연구를 하고 함께 공부하며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홍섭 지부장은 개량번식연구회를 함안군 지부의 자랑으로 소개했다.

“개량번식연구회는 2011년에 발족됐습니다. 초대회장이 개량과 번식을 위해 큰 노력을 했고 회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함안군 관내 송아지가 타 지역보다 자질이 좋아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역시 개별 단체였으나 몇 년 전부터 지부 산하에 들어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지부는 방역약품, 부재료, 톱밥 등의 함안군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행사업이나 지부 자체사업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축협 경제사업장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해 회원농가들이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 지금은 지부 자체사업보다는 중앙회 추진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부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농가가 앞장서서 한우 소비**

**한우 안먹는 모임 가지도 않아**

평소 한우 사랑이 대단한 이 지부장은 ‘한우를 먹지 않는 모임은 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한우소비에 열심이다.

“평소 한우를 많이 먹으려고 애씁니다. 한우

키우는 사람이 한우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한우를 먹자고 하고 손님들이 와도 한우를 먹자고 많이 제안합니다. 한우는 먹어보면 그 맛과 풍미를 잊을 수 없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한우를 홍보하게 될 테니까요.”

함안군지부는 지난해 럽피스킨으로 취소된 한우소비 홍보활동도 올해부터 재개하려고 계획 중이다.

“함안군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가 ‘아라 문화제’입니다. 함안군지부는 이 행사에서 한우구이 시식회와 할인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함안하면 수박

이 아니라 한우를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안군 지부의 목표를 물어보자 이홍섭 지부장은 첫째는 ‘단합’, 둘째는 ‘협력’이라고 답했다.

“첫째는 회원들 간의 단합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은 중양회나 부산경남도지회 업무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부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지부 살림을 불리는 것보다는 협력을 통해 응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함안 한우농가의 힘이 더해져 대한민국 한우농가들이 잘사는 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일 함안군가족센터를 방문해 한우불고기를 전달하는 ‘사랑의 한우나눔행사’를 가졌다.



‘아라 문화제’ 참여...한우 시식-할인 판매 계획  
관광객들에게 함안 수박보다 ‘한우’ 적극 홍보

함안군 지역 김장소비행사에 참가해 한우 무료시식회를 열어 소비자들에게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지난해 9월 3일 합천축협 스마트한우경매시장에서 개최된 ‘2024경남한우경진대회’에서 함안군지부 관내 박석희 농가가 우수상을, 전한수 농가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4 한우능력평가대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상 수상



박민규  
민스타농장 대표

## 개량의 최우선 조건 ‘암소관리’ 중요 TMF사료로 생산비 절감-성적 향상

300마리 규모의 농장에 66만㎡(20만평) 조사료포에 논농사까지... 눈코 뜰 새 없는 와중에도 개량에 앞장 서고 지역 청년 한우인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며 24시간을 240시간처럼 쪼개 사는 사람.

박민규 민스타농장 대표는 2014년 농장에 들어와서 꼬박 10년을 한우로 성공하겠다는 신념으로 살았다. 장난기 어린 얼굴 뒤에는 한우에 대한 열정과 치열한 연구, 노력이 숨어있다. 아버지가 일궈온 농장을 10년 만에 세 배로 늘리고 개량 능력을 인정받으며 매일 ‘일신우일신’하고 있는 박 대표를 만나러 김해로 가 보자.





## 아버지가 그려 놓은 스케치에 색칠하는 마음으로 한우 키워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통신회사에서 일 년 정도 일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심하게 다쳐 재활을 위해 고향에 내려와 아버지 일을 돕다가 한우 농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한우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아버지를 설득해나가는 과정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아버지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우 사육을 그림 그리는 일에 비유한다면 아버지가 하얀 도화지에 스케치를 했으니 나는 색칠을 하고 이왕이면 그림 전시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뤄낸 성과와 결과로 아버지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 TMF 도입, 20만평 자가조사료 경작 생산비 절감에 성적까지 월등히 상승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소가 먹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배합사료를 먹여서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거세우를 출하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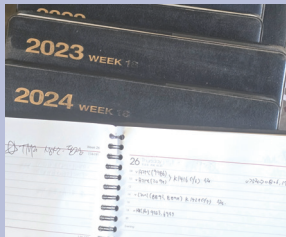
66

**300마리 한우 일관사육하는 ‘스타 한우인’  
20만평 자가 조사료포 경작에 복합농까지**

**TMF 도입 4~5년만에 성적 두 배로 향상  
평균 근내지방도 8.6 기록…매우 좋은 편**

99

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육기간	체중(kg)	체고(cm)	흉둘레(cm)	비중(kg)	비고
0001	한우	수컷	2020.01.01	2023.12.31	450	135	100	1.5	성적 우수
0002	한우	암컷	2020.02.15	2023.12.31	420	130	95	1.4	성적 우수
0003	한우	수컷	2020.03.10	2023.12.31	480	140	105	1.6	성적 우수
0004	한우	암컷	2020.04.05	2023.12.31	400	125	90	1.3	성적 우수
0005	한우	수컷	2020.05.20	2023.12.31	460	138	102	1.5	성적 우수
0006	한우	암컷	2020.06.12	2023.12.31	410	128	92	1.4	성적 우수
0007	한우	수컷	2020.07.08	2023.12.31	490	142	108	1.7	성적 우수
0008	한우	암컷	2020.08.03	2023.12.31	390	122	88	1.2	성적 우수
0009	한우	수컷	2020.09.18	2023.12.31	470	136	104	1.6	성적 우수
0010	한우	암컷	2020.10.01	2023.12.31	430	132	98	1.5	성적 우수
0011	한우	수컷	2020.11.15	2023.12.31	465	139	103	1.6	성적 우수
0012	한우	암컷	2020.12.01	2023.12.31	415	129	93	1.4	성적 우수
0013	한우	수컷	2021.01.10	2023.12.31	485	141	107	1.7	성적 우수
0014	한우	암컷	2021.02.25	2023.12.31	405	127	91	1.3	성적 우수
0015	한우	수컷	2021.03.20	2023.12.31	475	137	105	1.6	성적 우수
0016	한우	암컷	2021.04.15	2023.12.31	425	131	96	1.5	성적 우수
0017	한우	수컷	2021.05.05	2023.12.31	495	143	109	1.8	성적 우수
0018	한우	암컷	2021.06.20	2023.12.31	412	128	92	1.4	성적 우수
0019	한우	수컷	2021.07.10	2023.12.31	482	140	106	1.7	성적 우수
0020	한우	암컷	2021.08.05	2023.12.31	408	126	90	1.3	성적 우수
0021	한우	수컷	2021.09.25	2023.12.31	478	138	104	1.6	성적 우수
0022	한우	암컷	2021.10.10	2023.12.31	428	133	97	1.5	성적 우수
0023	한우	수컷	2021.11.20	2023.12.31	492	142	108	1.8	성적 우수
0024	한우	암컷	2021.12.05	2023.12.31	418	130	94	1.4	성적 우수
0025	한우	수컷	2022.01.15	2023.12.31	488	141	107	1.7	성적 우수
0026	한우	암컷	2022.02.28	2023.12.31	402	125	89	1.3	성적 우수
0027	한우	수컷	2022.03.25	2023.12.31	472	136	103	1.6	성적 우수
0028	한우	암컷	2022.04.18	2023.12.31	422	131	96	1.5	성적 우수
0029	한우	수컷	2022.05.08	2023.12.31	498	144	110	1.9	성적 우수
0030	한우	암컷	2022.06.22	2023.12.31	410	127	91	1.4	성적 우수
0031	한우	수컷	2022.07.12	2023.12.31	480	139	105	1.7	성적 우수
0032	한우	암컷	2022.08.08	2023.12.31	400	124	88	1.3	성적 우수
0033	한우	수컷	2022.09.28	2023.12.31	470	137	103	1.6	성적 우수
0034	한우	암컷	2022.10.12	2023.12.31	430	132	98	1.5	성적 우수
0035	한우	수컷	2022.11.22	2023.12.31	490	143	109	1.8	성적 우수
0036	한우	암컷	2022.12.08	2023.12.31	415	129	93	1.4	성적 우수
0037	한우	수컷	2023.01.18	2023.12.31	485	140	107	1.7	성적 우수
0038	한우	암컷	2023.02.29	2023.12.31	405	126	90	1.3	성적 우수
0039	한우	수컷	2023.03.28	2023.12.31	475	138	104	1.6	성적 우수
0040	한우	암컷	2023.04.20	2023.12.31	425	131	97	1.5	성적 우수
0041	한우	수컷	2023.05.10	2023.12.31	495	144	110	1.9	성적 우수
0042	한우	암컷	2023.06.24	2023.12.31	412	128	92	1.4	성적 우수
0043	한우	수컷	2023.07.14	2023.12.31	482	140	106	1.7	성적 우수
0044	한우	암컷	2023.08.09	2023.12.31	408	126	90	1.3	성적 우수
0045	한우	수컷	2023.09.29	2023.12.31	478	139	104	1.6	성적 우수
0046	한우	암컷	2023.10.14	2023.12.31	432	133	99	1.5	성적 우수
0047	한우	수컷	2023.11.24	2023.12.31	492	145	111	2.0	성적 우수
0048	한우	암컷	2023.12.10	2023.12.31	418	130	94	1.4	성적 우수







**출품한우 도체중 600kg  
등심단면적 149cm<sup>2</sup>  
최종등급 1++A 기록**



서 성적을 분석해 보니 미세 마블링이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농장 일을 시작하면서 공판장을 꾸준히 드나들었던 그는 출하한 소의 등심을 직접 확인하면서 현장형 공부를 시작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한우 마이스터 대학에 입학해 사양관리에 대한 연구를 거듭했다.

“처음에는 배합사료랑 벵조만 잘 먹이면 한우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김해에 2세 모임인 ‘미래축산연구회’ 사람들을 만나면서 발효사료를 알게 됐습니다. 출하하는 소의 등급을 확인하면서 경영의 개념을 처음으로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300마리 이상 비육하는 대규모 농장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TMF(Total Mixed Ration) 사료를 만드는 방법, 급이하는 패턴, 출하 요령 등을 익히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발효사료를 먹였을 때 성적이 향상된다는 연

구결과를 보면서 TMF 도입을 구상한 그는 규모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TMF를 도입한 지 4~5년 정도 됐는데 성적이 두 배 이상 좋아졌습니다. 성적으로 전국 100등 안에 들어갑니다. 평균 근내지방도도 8.6으로 매우 좋은 편입니다.”

맥주박과 단미 원료는 김해축협 TMF원료를 받아와 1, 2차 발효를 하고 있다.

“맥주박과 버섯배지를 1차 발효하고 원료를 추가해 한달 동안 숙성해 2차 발효를 합니다. 발효를 하는 과정에 손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산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적이 월등히 좋아졌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 외에도 더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강선발로 철저한 우군관리 개량 위해 끊임없이 도전**

개량의 최우선 조건으로 그는 암소관리가 중요하다고 꼽았다. 민스타농장은 재작년에만





66

**하루의 작업과 소에 대한 처방 기록 등  
수기 후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흐름 파악  
기록관리가 사양과 개량에 가장 중요**

99

30마리의 암소를 도태시켰다.

경제산차를 고려하지 않고 형질이 우수한 암소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특징이다.

“우리 농장에는 7~8산 암소들도 수두룩합니다. 12산차 암소도 있습니다. 우량암소와 초우량암소가 많아 올해만도 초우량 암소가 4~5마리 정도 나왔습니다. 강선발로 암소우군이 좋아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적으로 증명됐다. 얼마 전 출하한 45마리 중 41마리가 1++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무조건 좋은 정액을 고집하기 보다는 좋은 정액들을 교차 사용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과정도 주효했다.

“처음에 육질형으로 수정을 했으면 다음에는 육량형으로 보완해 수정하는 방식으로 우량 정액을 사용했습니다.”

수태율 향상을 위해 초음파 기기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방법으로 수태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초음파 기기를 활용해서 배란된 쪽으로 정액을 넣습니다. 손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정확도가 높고 수태율도 올라갑니다. 발정 징후를 보고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수정사들과 상의해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체중과 등심단면적, 근내지방도 중에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은 등심단면적이라고 강조했다.

“등심이 커야 농가들 입장에서는 수취가격이 높고 중도매인도 고가로 팔 수 있는 양이 많으니까 등심단면적을 향상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량을 하다 보니 도체중량이나 마블링 스코어는 개선되는데 등심단면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출하 소들의 등심단

면적 평균이 120정도인데 최근에는 150정도 되는 소도 나왔습니다.”

### 사양관리에 핵심은 ‘관심’

#### 미생물 직접 만들어 사료에 첨가

송아지 폐사율이 현저히 낮다는 민스타농장은 지난해 80마리 분만송아지 중 고작 한 마리 정도만 폐사됐고 그마저도 분만 후 사고로 인한 폐사였다.

사양관리의 핵심을 ‘관심’이라고 강조한 그는 사실상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특별한 사양관리를 하고 있다. 미생물을 직접 만들어 사료에 첨가하고 미생물 유익균을 농장 전체에 살포하고 있다는 박 대표는 퇴비가 관내에서는 제일 좋다는 칭찬을 받는다고 멋쩍게 말했다. “새로 지은 축사에는 환기 분무 시설을 했기 때문에 미생물 유익균 살포를 정기적으로 하

고 있고 오래된 다른 축사는 직접 분무 살포하고 있습니다.”

### 조사료 생산농가-우수 농장 견학

#### 끊임없는 연구, 정보교류로 발전

농장에 들어온 지 10년 만에 농장을 세배로 성장시키고 개량에서도 성과를 내며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수상한 그를 주위에서는 부러워한다.

“김해의 2세농가들과 함께하는 미래축산연구회 회원들이 큰 힘이 됩니다. 연령대가 비슷해 가족들도 함께 만나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우를 가장 잘 키우는 사람이 될 때까지는 가장 즐겁게 키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업체탐방  
주목! 이제품

TRI-ON  
International

장기은 대표

TRI-ON  
(주)트리언인터내셔널





# 트리언인터내셔널 '펄스'

## 국내 유일 압력조절 가능한 무침 주사

2023년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에서 주사바늘이 발견되면서 시장이 시끄러웠다. 이물질을 탐지하기 위해 금속검출기를 3대나 설치해 가동 중이었다는 육가공업체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당시 육가공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접종 시스템을 바꿔 농장 단계에서 무침 접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렇게 무침주사가 주목을 받으면서 다양한 국내 제품들이 개발된 것이 사실이지만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무침주사 펄스가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주)트리언인터내셔널은 '인간, 자연, 건강'을 미션으로 하며 식품, 동물용 의약품원료, 사료첨가제, 의료기기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주)트리언 인터내셔널은, 2016년부터 무침주사기를 국내시장에 도입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동물전용 주사침을 지속적으로 농가에 소개하여 동물에 적합한 주사침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올바른 주사방법을 통해 농가의 이익을 증대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무침 주사의 오리지널 기술 '펄스'

“무침 주사가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무침 주사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장점이 있겠지만 사실상 압력 조절이 가능한 것은 펄스가 유일무이 합니다. ‘펄스 무침주사기’는 국내 유통 무침주사기 중 유일하게 ‘압력

방식’이고 근육, 피내, 피하 접종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백신, 항생제, 영양제 등 모든 주사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의사 출신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장기은 (주)트리언인터



농장에서 소비지까지  
친환경적 안전성 확보  
경제적 이익이상 가치 실현

내셔널 대표는 경영자이기 전에 수의사 출신이라는 직업적 양심에 비춰 동물의 건강, 더 나아가 식육위생 측면을 고려했을 때 펄스 무침주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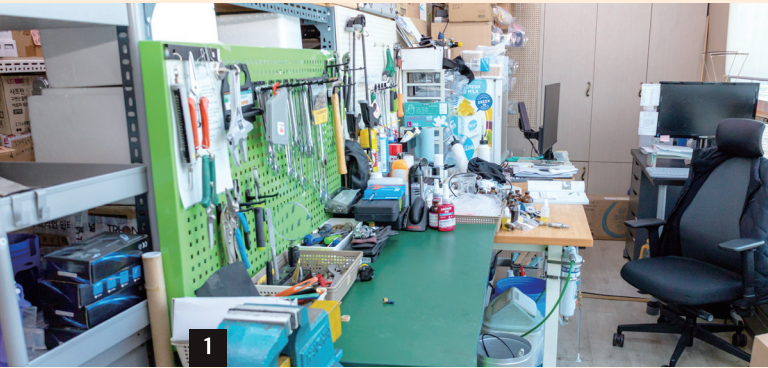
특히 그는 ‘동물 피부에 맞는 주삿바늘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동물전용 주사침 판매사업도 펼치고 있다.

“(주)트리언인터내셔널은 사람·자연·존중 세 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건강한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는 기업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소재 및 제품 개발에 있어서도 항상 사람과 자연, 동물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항상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동물 건강 분야를 선

#### 펄스 무침주사기의 차별성

- ✓ 1두 1침효과로 질병전파 차단
- ✓ 피부를 통한 분산흡수로 백신 효과 증대
- ✓ 정확한 용량 투여  
(연속주사기 오차: 5%, 펄스 무침주사기 오차: 0.25%)
- ✓ 조직손상방지로 이상육 절감
- ✓ 바늘 구매 및 교체가 필요 없어 시간과 비용 절약
- ✓ 바늘로 인한 안전사고예방
- ✓ 주사 바늘의 통증과 스트레스 절감
- ✓ 주사기/바늘의 소비가 없어 친환경적
- ✓ 잔침의 가능성을 제거, 안전한 식육공급가능





1. 트리언인터내셔널에서는 제품 A/S가 바로 이뤄지고 있다.



2. 장기수 트리언인터내셔널 부장(사진 오른쪽)은 장기는 대표의 친형으로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전자부품기계 관련 30년 이상 근무해 온 전문가다. 장 부장은 현재 제품 A/S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하고 우리의 고객인 축산농가들과 동반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방향성입니다.”

### 왜 무침주사인가

일반주사기는 바늘이 직접 피부로 침투, 질병 감염과 질병 전파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진피에 약이 전달되지 않는 문제도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사침의 부러짐으로 인한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이상육이 발생할 수 있다.

펄스의 무침주사기는 바늘이 피부내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질병 전파를 차단한다. 특히 18g 바늘 직경의 1/7인 미세분사를 통해 진피 침윤이 가능해 약효전달이 용이하며 넓게 확산돼 흡수율을 향상시킨다는 장점도 갖

고 있다.

(주)트리언인터내셔널은 무침주사를 통해 농장에서 소비까지 친환경적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농장에서는 접종 시 소 뒷발에 차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로써 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주사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다.

도축에서는 주사침 잔존으로 인한 이상육 발생 저감효과는 물론 위해요소 관리에도 용이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통업체에서 이상육 발생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는 위험도 줄어든다. 이를 통해 육류제품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얻고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고품질의 육류를 섭취한다는 친환경적 이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동물 건강·복지는 물론  
근로자 안전까지 보장  
안전한 식육-환경보호 이득

장 대표는 무침주사 펄스가 동물의 건강·복지는 물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식육과 환경 보호 등 경제적 이익 이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펄스 무침주사, 무엇이 다를까

펄스 무침주사가 다른 무침주사와 가장 차별화된 점은 압력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중 판매되는 무침주사들이 압력이 일정해 접종 깊이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것과 달리 압력 조절을 통해 사람의 실수 없이 원하는 접종 깊이로 일정하게 접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피내, 피하, 근육 접종 선택이 가능한 것이다.

주사제에 압력이 가해지고 노즐의 작은 출구로 뿜어져 나가면서 피부를 뚫을 수 있는 일정한 힘을 생성한다는 것도 강점이다.

### 일반주사기 vs 펄스 무침주사기 비교



### 펄스 축우용 무침주사기 제품 모델



#### 펄스 250

투여량 범위 : 0.5ml ~ 2.5ml  
일반 접종에 적합  
(용량 및 압력 조절로 피내 접종도 가능)



#### 펄스 500

투여량 범위 : 1.0ml ~ 5.0ml  
대용량 접종에 적합



장 대표는 “다른 제품들은 디지털 방식이고 펄스는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비교하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고장이 적고 이것이 압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강점과 사용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강점에 비할 수 없다”며 “농장에서 잔고장 없이 확실한 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펄스의 무침주사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구결과 바늘 주사로 인한 질병 전파율은 60%인데 반해 펄스 무침주사기로 진행한 연구결과 질병 전파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펄스 250/ 500, 안전사고 예방한 모델

펄스제품은 250과 500으로 제품이 나뉘져

있다. 투여량 범위가 다르고 펄스250은 일반 접종에 적합한데 반해 펄스500은 대용량 접종에 적합하다.

방아쇠 방식 안전장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했으며 방아쇠를 당긴 상태로 노즐에 압력을 가해 발사하며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손쉬운 작동이 가능하다. 주사바늘이 없어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소의 피부에 적합한 돌출형 노즐을 장착하고 있다.

장 대표는 “펄스의 무침주사는 무침주사의 원조격으로 압력 조절이 가능하다는 유일무이한 무침주사”라며 “다양한 백신과 주사 접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에게 펄스의 무침주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우 사육기간 단축, ‘강행’보다 변화 ‘공감’부터



김재광  
정책지도국 과장

한우 고유의 품질과 농가 수익성을 위협하는 사육기간 단축 정책이, 정부 주도로 일방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사육기간 단축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육기간 단축이 같은 품질의 고기를 생산해 같은 소득을 낼 수 있다면 농가에서도 환영할 것이다. 다만, 충분한 검증과 현장 실증 없이 일부 우수 개체의 제한적 결과치만을 근거로 성급하게 시행을 서두른다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급진적인 사육기간 단축 정책시행은 한우 고유의 품질과 맛을 훼손하고 수입육과 차별화되는 한우만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단기비육우를 시식한 전문가와 시장 평가는 ‘맛이 밋밋하고 향이 부족하다’는 데 일치한다.

단기비육으로 인해 소비자가 기억하는 한우 고기의 맛과의 괴리감이 커지면, 한우에 대한 신뢰 하락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30개월 이상의 사육은 근내지방을 충분히 형성시키고, 한우 고기 특유의 풍미와 깊이를 만들어내는 핵심 조건으로 작용한다. 1++ 등급의 단기비육우일 경우 중도매인들은 한우 고유의 맛과 풍미를 끌어올리기 위한 추가적인 후숙 등 추가 조치를 한다.



둘째, 농가의 경제성이나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도매가격 하락과 사료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2024년 거세우 출하월령은 31.6개월로 오히려 증가했다.

만약 단기비육이 농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면, 정부의 장려 없이도 농가 스스로 사육기간 단축에 나선다. 소비자 가격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기대 역시 불투명하다.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에서는

사육비 절감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직접 연결되기 어렵고, 오히려 품질 저하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한우 고기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수요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셋째, 정책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도 우려된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사료비 절감을 명분으로도 사육기간 단축을 추진하지만, 사육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입식 주기가 빨라져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총량과 사료 소비량이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는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단기비육 등급제(골드·실버·브론즈)는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 도

매시장에서는 여전히 기존 등급(1++, 1+, 1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결국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결국 한우 사육기간은 단순한 '월령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도체중, 품질, 수익성 등

현재 사육방식, 유통·소비 요구에 맞춰 최적화 변화에 앞서 사양관리 전반 다각적 검토 선행  
무리한 정책 강행보다 농가와 충분한 소통 필요  
현장 소통-실증 바탕...함께 고민하며 준비해야

복합적 요소가 맞물린 산업 구조적 과제이며 혁신 수준의 변화다. 지금의 사육방식은 유통과 소비의 요구에 따라 최적화를 거쳐 정립됐다. 변화에 앞서 한우 개량, 사료 프로그램, 사양관리 전반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은 현장을 따라가야지, 끌고 가선 안 된다. 변화는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와 현장과의 소통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는 무리한 정책 강행보다 농가와 충분한 소통과 현장 실증을 바탕으로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며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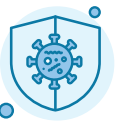


# 수의칼럼



김성기  
한국소임상수의사회장

## 골치 아픈 송아지 설사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어제까지도 잘 뛰어놀고  
어미젖도 잘 빨아먹고 활  
발하게 움직이던 송아지  
가 아침에 와 보니 활기도  
줄어들어 있고 하는 행동  
도 좀 이상하다.

송아지 항문 쪽을 자세히  
보니 꼬리털이 젖어 있는  
것 같다. 눈빛은 힘이 없

고 수심에 찬 모습을 보인다. 혹시 설사병에 걸렸나? 운동장을 자세히 살펴  
보니 역시 설사의 흔적이 보인다. 어떻게 해야 할까.





## 송아지의 생리 및 특성

입에서부터 위 장 항문까지 연결하는 기관을 소화기관이라 한다. 소화기관의 하는 일은 외부로부터 입을 통하여 들어온 것 중 내게 필요한 것은 취하고 필요 없는 것을 내버리는 역할이다. 우선 먹어야 한다.

## 초식동물의 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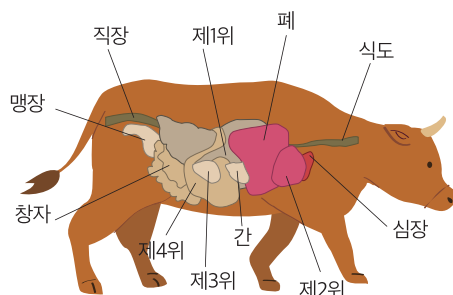
자연계에서 초식동물로 특히 소로 살아가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우선 먹을 만한 풀이 많아야 하고 육식동물의 공격에 대한 경계가 필수적이다. 항상 주변의 상황에 대한 예민한 반응과 함께 먹는 행동까지 함께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의 먹이 활동은 어떤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도 불편한 자리에서 식사를 억지로 하고 나면 뱃속이 편치 않았던 경험을 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초식동물인 소에게는 더 심각하다. 자신이 육식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심지어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새끼를 포기하고 자신만이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고통을 감수하기도 한다.

## 종족 보전을 위한 진화

소는 4개의 위를 가진 동물로 분류한다. 진화가 그렇게 되었다.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먹을 수 있는 풀이 많은 장소를 발견하면 빨리 많은 양을 먹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위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위를 하나 가진 동물

소의 내장기관







의 위에서 소화하는 방식으로는 풀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뽑아낼 수 없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4개의 위를 구성하고 각 각의 위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분담하여 풀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자신이 쓸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1위이다. 제1위에서는 침과 함께 급하게 들어온 먹이를 맡아서 자체에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을 이용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처리되어 나온 산물은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은 장소에서 되새김이라는 과정을 거쳐 단위 동물의 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제4위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빨리 많이 섭취한 먹이를 온전히 이용할 수 있다. 초식동물 중 위 하나만을 가진 동물

들도 있다. 이들은 4개의 위를 가진 동물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풀에서 충분한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 소화기관 중 특별한 부분의 기능을 특화하여 풀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흡수 할 수 있다.

### 송아지 위장관 변화는

#### 생존에 취약한 시기

갓 태어난 송아지 위를 살펴보면 4개의 구분된 부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부위의 크기와 기능은 제4위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자라면서 반추동물로서의 모습을 이루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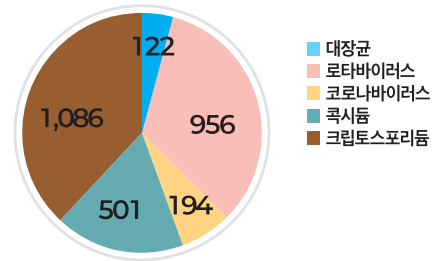
태어나서 약 3개월 정도가 되어야 4위 동물의 위가 가진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 기간을 다른 각도

출생 후 송아지에게 초유 급여 필수적  
초유 통한 충분한 항체 전달이 중요  
어미소 분만전 로타, 코로나백신 접종



## 송아지 일령에 따른 설사병의 증상과 발생가능한 원인체

송아지 일령	임상 증상	발생 가능한 질병(원인체)
1~5일령	급성, 황/백색 수양성변	대장균
1~2주령 (5~14일령)	심한 설사	로타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5~21일령	간헐적인 설사, 인수공통전염병	크립토스포리듐
모든 일령	고열, 혈변, 폐사, 인수공통전염병	살모넬라균
18일 이상	혈변/점액성 설사	콕시듐

송아지 설사병의 원인체 분포도  
(Villarreal, 2012)송아지 설사병  
주요 증상

- **수양성 변**: 더러운 꼬리
- **탈수**: 눈이 침침하고 피부 텐트가 느려진다(2초 이상)
- **침울**: 머리가 아래로 향하고 귀가 아래로 향하고 오래 서 있기를 꺼린다.
- **허약**: 걸리기 쉽고 걸을 때 불안정 열이 나거나 말기 질병이다.
- **차가운 사지(귀와 다리)와 포유력 약함**: 심각한 질병을 나타낸다.
- **빠르거나 느린 호흡**: 대사성 산성증이 있는 동물은 혈액 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빠르게 호흡하고 부분적으로 산성증을 교정 즉 보충한다. 빠른 호흡은 폐렴의 증상과 혼동될 수 있다. 질병의 말기 단계인 폐사에 가까워질수록 더 천천히 더 깊게 숨을 쉰다.

에서 생각하면 생존에 취약한 시기가 되는 것이다. 이 기간에 어미의 젖에서 자신의 발육과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4위 동물의 정상기능을 하는 위구조를 갖추는 변화를 이루어야 내야 한다. 적당한 환경, 어미의 보호 그리고 젖을 먹는 조건은 필수적이며 그동안 1위 내 건강한 미생물 총을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기 변화에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며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소화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 밖

으로 보이는 증상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설사이다.

## 송아지 소화기능 이상 요인

## 정신적 물리적 스트레스

무리 중 서열에 밀려 따돌림을 받는 송아지는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어미의 젖을 먹는다. 어미가 다른 어미 소 또는 송아지의 방해로부터 자신의 송아지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신체의 비정상상황



송아지 급성·만성적  
병원체 기생충 감염

영양상태 악화  
면역기능 저하 '악순환'

설사 발생원인-치료방법  
적절성 따져봐야

에 대한 반응을 유도하여 소화불량, 복통 및 장 연동 촉진에 의한 설사 증상을 보이게 한다.

### 면역기능 저하

정신적 물리적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영양 상태 악화와 이에 따른 면역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이 된다. 결국은 병원성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 설사를 유발하는 병원체의 감

염에 취약한 상태를 만든다. 송아지의 급성 또는 만성적 형태의 병원체나 기생충 등 감염은 송아지 영양 상태 악화와 이에 따른 면역기능 저하로의 악순환을 유도한다.

### 약물 오남용

항생제나 항균제는 병원체를 죽이거나 번식을 방해하는 좋은 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물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상 송아지의 몸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들 대부분의 약제는 부작용으로 정상적인 장의 세포에 작용하여 설사를 유발한다(약제에 같이 들어있는 설명서에는 보통 빨간색의 주의사항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글씨로 쓰여 있다).

몸의 다른 부분에 필요하여 약제를 쓰면 부작용으로 설사도 나타나는 것이다. 필자도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을 때 겪는 일이다. 처방받은 약에는 항생제도 들어있을 경우가 많다. 약 복용 2 일차가 되면 벌써 신호가 온다. 뱃속이 부글거리고 불편하다. 언제 터질지 몰라 긴장된 순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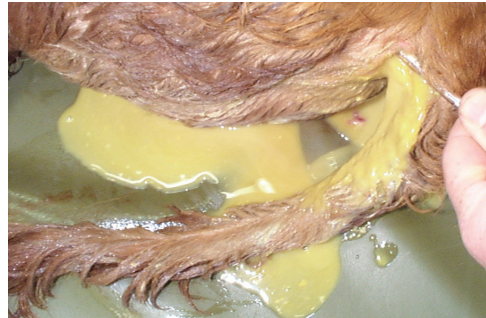


당한 적도 있다. 당연히 약 투여를 중단하면 설사는 저절로 회복한다. 약물 자체가 장점막 세포를 자극하거나 알러지 반응을 보여서 나타나는 설사이다. 여기서 설사가 발생했다고 항생제를 더 쓰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4위 기능이 완성된 성우에서는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경구투여하지 않는다. 제1위 이외의 목적하는 부위의 항생제 혈중 농도를 유지 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하여 1위 내 미생물 총을 파괴하여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1위 내 미생물의 균형은 소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성우에서도 다른 경로를 통한 항생제 투여 시 1위 내 미생물 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아직 1위 미생물 총이 완성되지 않은 송아지의 경우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장관 내 미생물들도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송아지 장관 내 미생물 총의 변화는 당연히 설사를 유발하게 한다. 미생물 총의 파괴를 바로 잡는 일은 쉽지 않다.

### 먹이문제

장의 염증은 꼭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송아지에게 젖



기생충(원충)성 설사병

을 먹이는 중인 어미 소는 발정기 중 나타나는 발정호르몬의 영향으로 송아지에게 젖을 주지 않거나 젖의 질이 일시적으로 변한다.

조성이 변화된 젖을 먹은 송아지는 일시적 설사를 한다. 알러지성 물질이나 비감염성 독성물질이 송아지가 먹는 물이나 사료 속에 섞여 있다면 이도 설사의 원인이 된다. 영양제로 주는 첨가 사료 중에 개체에 따른 알러지 물질이 있을 수도 있다.

###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는가 마는가에 대한 고민

현재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송아지 설사병의 원인은 대부분 바이러스성, 세균성, 기생충성 등 전염성이다. 가장 많은 원인은 바이러스성(필자의 경험으로는 로타바이러스가 가장 많았다)과 기생충성



### 송아지 설사를 치료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



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들은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이 거의 없다.

오히려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은 송아지의 간 기능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투여된 약물 분해를 위한 간세포의 스트레스는 약물로 인한 자카치유 지연과 면역력 약화를 초래한다. 설사를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하면 이어서 일어나는 탈수, 영양실조와 이에 따른 체력 저하로 폐사에 이르고 만다.

### 전염성 설사에 대한 대비책 강구

전염성이기 때문에 한동안 송아지들에서 설사 증상이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기 여러 마리에서 나타난다. 어디선가 옮겨온 것이다. 농장의 바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오염원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치료도 쉽지 않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며 자칫 방심하면 송아지를 잃게 된다. 설사 발생 원인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 예방 및 치료 관리 기본

### 초유 급여

송아지 출생 후 송아지에게 초유 급여는 필수적이다. 소의 번식 생리 특성으로 태아에게 태반을 통한 모체의 항체를 보내줄 수 없다. 초유를 통해서만 보내줄 수 있다.

초유를 통한 충분한 항체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려면 모체의 초유에 충분한 양의 항체가 함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로타, 코로나 등 백신을 어미 소가 분만하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초유에 포함된 항체의 양을 충분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 환경요소 점검 및 관리

영양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온도,

송아지 설사병 발생 시 탈수에 따른 증상과 처치

탈수 (%)	산성증 정도	안구함몰	피부 텐트(초)	점막	임상증상	수액요법
0~4	1	정상/약간	1~4	젖어 있음	밝고 기민, 강한 포유력, 따뜻한 입, 기침 없음	아무런 조치를 안하거나 경구투여(전해질)
5~8	2	안구와 안와사이 약간 분리	5~10	점착성	기립하거나 조용히 앉아 있음, 약한 포유력, 가까이 가면 걸음	전해질 경구투여
9~10	2	안구와 안와사이 0.5cm 분리	10~15	점착성	침울, 기립부전, 포유력 없음, 차거운 입, 쉽게 기침함	수액공급 필요
11+	4	안구와 안와사이 0.5~1.0cm 분리	15초 이상	건조	무기력, 빈사(거의 죽게 되는 현상), 황와, 포유력 없음, 매우 차거운 입	수액공급 필요

습도, 우상의 상태, 제각, 거세 등 송아지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소들을 점검 관리해 주어야 한다. 포유 기구와 사료 조 및 물통의 위생적인 관리 또한 중요한 환경요소이다. 특히 송아지를 외부에서 입식 하였다면 일시적인 격리를 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흡사를 한다.

#### 상시 증상 발생 여부 관찰 및 신속 대처

또한,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는 일은 계속해야 한다.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에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요인에 의한 설사인지 먼저 평가 및 판단을 하고 치료 방법이나 약물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사에 좋다고 써어있는 약은 수도 없이 많다.

‘설사에 좋다’라는 뜻은 그 약이 ‘치료에 유효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부작용을 감

수하고서라도 ‘치료에 유효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그러니 생각 없이 아무런 약이나 투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약마다 작용 방법, 특성, 부작용 등이 다르므로 유효한 상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선택한 송아지 설사병 치료가

#####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고 있나?

선택한 치료 방법의 적절성을 따져서 회복에 방해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회복을 오히려 방해하는 부분은 빨리 찾아내어 제거해야 한다.

송아지 입장에서 설사는 자신에 가해지는 환경변화나 침입해오는 병원체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반응 중 하나이다. 자신의 몸속에 들어온 것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 없거나 해를 끼치는 부분을 배출해 버리는 방법이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 100문 100답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 Q 번식용 암송아지의 성장단계별 발육 목표는

**암송아지를 번식우로 활용하여 매년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려면 이유 후 초산까지 과비육이 되지 않도록 적정량의 사료를 급여하고, 충분히 운동할 수 있도록 방사시키되, 하루에 적어도 4시간 이상 햇볕을 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적절한 사양관리를 하여도 개체에 따라서는 사료를 먹는 속도, 사료 효율, 유전적 자질 등에 의해 축군에서 성장이 떨어지는 개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개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됨으로 적어도 3~6개월에 한 번씩 체중을 기준으로 성장이 빠른 집단, 중간 정도의 집단, 성장이 뒤떨어지는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방 배치를 하여주고, 특히 성장이 뒤떨어지는 집단은 농후사료를 20~40% 증량(1~2kg/일)하여 보상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육성우의 사양관리 포인트는 바로 충분한 운동과 함께 양질의 조사료를 자유 채식토록 함으로써 춘기발동기 이전에 일당증체량을 0.5~0.6kg 수준으로 유지하고, 12~15개월령에 성성숙에 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봄 송아지는 4~5월에 분만하여 이유 후

양질의 사일리지를 중심으로 한 사양체계를 유지하고, 가을 송아지는 방목 시기와 이유 시기가 일치하도록 10~11월에 분만되도록 번식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 Q 암송아지 육성기 사료 급여 기준 및 사양관리 요점은

**암송아지의 육성기는 성장발육 특성으로 볼 때 생후 3~4개월령 전·후의 이유부터 12~13개월령 때의 번식 기간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는 골격, 근육 및 생식기의 발달이 왕성하고, 특히 소의 일생에서 소화기관이나 번식기관이 최대로 성장하는 기간일 뿐 아니라, 급여하는 사료의 종류, 사료의 양과 질에 의하여 쉽게 성장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결정된 기초 체형, 포유능력 및 번식특성이 일생 동안의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 기간의 사양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암송아지가 번식우로서의 생산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영양소를 과부족 없이 급여하여 적정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육성기는 골격 및 소화기관의 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므로 농후사료보다는 조사료 위주로 급여하되, 단백질, 광물질 및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육성우의 1일 영양소 요구량은 체중 및 일당증체량에 따라 다르고, 성장단계에 따라 증체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전 기간 동안의 체중 및 일당증체량에 대한 평균의 개념으로 영양소 요구량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우 암송아지에 대한 구간별 체중과 일당증체량의 목표치를 결정한 후 한우 사양표준(2007)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구량에서 0.4 또는 0.6kg 증체를 기준으로 하여 1일 영양소 요구량을 산출하면 되는데, 조사료를 벵짚으로 할 경우에 농후사료는 체중 대비 1.4%가 적절하다.

그러나 실제로 번식우를 사육하는 단계에서는 기상여건 또는 사료의 품질 등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요구량보다 10~20% 증량하여 사료 급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 Q 암소비육 시 발정억제 방법은

**번식용 암소는 평균 21일의 발정 주기를 가진다. 통상적으로 발정기의 가축은 활동량(운동량)이 많아지고, 신경이 불안해지는 등의 증상을 동반하면서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어 비육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일정기간 번식용으로 사용한 암소나 번식 경험이 없는 처녀우를 출하할 목적으로 비육시키기 위해서는 발정을 차단하는 것이 육량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암소비육 시 발정억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발정 제어 호르몬과 같은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발정 관련 호르몬을 생산·분비하는 번식기관인 난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로는 Melengestrol Acetate(MGA)라는 성분의 약제로 평상시 사료에 첨가하여 함께 급여함으로써 암소의 황체호르몬 분비를 억제하여 발정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약제는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 전문 의약품이므로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휴약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외과적 방법으로는 난소적출기를 이용하여 난소를 절제하거나 난소결찰기를 이용하여 묶어주는 방법이 있다. 난소결찰법은 결찰기를 질에 삽입하여 관통한 후 실리콘링으로 난소를 묶어(결찰) 난소의 기능을 정지시킴으로서 발정이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시술 시기는 미경산우는 12~15개월, 경산우는 분만 후 2개월 전후가 적당하며 시술 후 7~8개월 이상 비육을 해야 효과가 있다.

난소를 결찰하면 발정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수소와 혼합사육이 가능하고 승가 및 허용에 의한 사고 발생과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사료 섭취량의 감소가 없으므로 증체 및 육질등급이 향상된다. 난소결찰 시술농가의 출하성적을 보면 시술하지 않은 암소보다 출하기간 단축과 육질등급이 좋아져 높은 가격을 취득하였다. 시술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미경산우의 경우에는 수소와 비슷한 체형으로 변한다.



## Q 한우도 발굽관리를 해야 하나요



사진출처: MBCNEWS

**발굽 삭제는 외견상 긴 발굽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발굽 바닥의 케양, 피부염, 발굽백선병 등 발굽에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 치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부 농장의 암소의 발굽이 상당히 많이 자라있고 경우에 따라 한쪽 발의 발굽이 서로 엇갈려 있는 일명 스�크류 발굽도 다발한다. 발굽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필요한 것이 발굽 삭제 칼(좌, 우)인데, 많은 개체를 관리한다면 발굽 그라인더가 편리하다. 발굽을 삭제하는 방법은 발굽 바닥에서 45°각도로 발굽 바닥의 백선을 주의하면서 삭제한다. 발굽이 긴 개체의 경우에는 한번에 완벽하게 삭제하기보다 몇 주간 2~3회에 걸쳐 관리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많이 삭제하는 것은 심한 고통을 유발한다. 소가 기립한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올려 삭제할 경우 소가 날뛰어 사람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위해 소를 보정하는 장비가 있으면 편리하다.

## Q 송아지의 거세는 어느 시기가 적당한가

수송아지의 거세는 생후 4~6개월령에 외과적 방법으로 거세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으며 8개월령 이후 비육기에 하면 육질과 출하체중이 감소한다. 거세 효과는 성장과 사료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지만 성질이 온순해져 집단사육이 용이하고 비육기에 근내지방도가 증가하고 근섬유가 늘어지며 고기의 연도가 좋아지는 등 육질 향상의 이점도 있다.

거세 방법은 버디조(burdizo)를 이용한 무혈거세가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으나 거세 효과가 70% 정도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고 스트레스가 적은 외과적 조기 거세가 더 좋다.



# 한우산업 주요통계

HANWOO  
Key Statistics



※ 자료 : KOSIS국가통계포털,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평가원 통계누리, 축산유통정보,  
농협축산정보센터, 한우자조금

구분		사육호수		사육두수		가임암소		호당평균
년도	분기	호수	증감	두수	증감	두수	비중	사육두수
2021	1	89,295	↑0.4%	3,207,575	↑0.6%	1,524,524	47.50%	35.9
	2	89,617	↑0.4%	3,388,284	↑5.6%	1,589,431	46.90%	37.8
	3	89,645	0%	3,398,033	↑0.3%	1,627,496	47.90%	37.9
	4	89,559	↓0.1%	3,367,972	↓0.9%	1,626,476	48.20%	37.6
2022	1	89,343	↓0.2%	3,394,106	↑0.8%	1,610,450	47.40%	38
	2	89,016	↓0.4%	3,554,418	↑4.7%	1,671,529	47%	39.9
	3	88,471	↓0.6%	3,556,256	↑0.1%	1,697,742	47.70%	40.2
	4	87,470	↓1.1%	3,480,739	↓2.1%	1,679,697	48.20%	39.8
2023	1	86,524	↓1.1%	3,462,842	↓0.5%	1,646,662	47.50%	40.1
	2	85,261	↓1.5%	3,569,876	↑3.1%	1,694,065	47.50%	41.9
	3	84,097	↓1.4%	3,513,614	↓1.6%	1,698,324	48.30%	41.8
	4	83,254	↓1.0%	3,434,823	↓2.2%	1,698,986	48.90%	41.3
2024	1	82,227	↓1.2%	3,353,759	↓2.4%	1,635,203	48.60%	40.8
	2	80,590	↓2.0%	3,449,127	↑2.8%	1,658,732	48.10%	42.8
	3	79,251	↓1.7%	3,388,412	↓1.8%	1,658,751	49%	42.8
	4	77,910	↓1.7%	3,287,549	↓3.0%	1,625,169	49.40%	42.2
2025	1	76,808	↓1.4%	3,223,681	↓1.9%	1,580,179	49%	42

품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큰암소 (천원/ 600kg)	평년	5,585	5,486	5,449	5,363	5,337	5,499	5,344	5,443	5,553	5,678	5,911	5,548	5,474
	2024	4,835	4,682	4,689	4,568	4,474	4,488	4,429	4,580	4,812	5,139	5,070	5,152	4,748
	2025	5,148	5,198	5,163	5,139	5,087								5,147
거세우 (원/지육kg)	평년	19,806	19,642	19,930	20,368	20,878	20,819	20,948	21,068	21,387	20,402	19,506	19,252	20,261
	2024	17,714	17,961	17,355	17,468	16,846	16,715	17,185	18,096	19,454	18,500	18,439	18,833	17,963
	2025	18,630	18,321	17,985	18,255	18,236								18,285



## 한우산업 주요통계

품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농가수취 가격 (천원/두)	평년	9,139	8,978	9,075	9,297	9,526	9,467	9,541	9,571	9,758	9,378	9,004	8,964	9,292
	2024	8,396	8,477	8,174	8,227	7,951	7,906	8,077	8,451	9,058	8,640	8,648	8,908	8,461
	2025	8,868	8,702	8,543	8,762	8,735								8,722
한우평균 (원/지육kg)	평년	18,574	18,201	18,137	18,312	18,534	18,345	18,491	19,100	19,642	19,164	18,393	18,094	18,491
	2024	16,315	16,467	15,659	15,877	15,126	14,903	15,434	16,564	18,111	17,449	17,509	17,855	16,482
	2025	17,615	17,355	17,053	17,208	2,793								17,246
암송아지 (6~7개월)	평년	2,850	2,820	2,807	2,861	2,877	2,984	2,937	2,879	2,942	2,926	2,985	2,741	2,859
	2024	2,447	2,395	2,388	2,275	2,241	2,349	2,454	2,353	2,464	2,538	2,548	2,442	2,406
	2025	2,544	2,616	2,690	2,667	2,793								2,662
수송아지 (6~7개월)	평년	3,752	3,633	3,688	3,930	3,997	4,160	4,131	4,122	4,220	4,010	3,964	3,812	3,900
	2024	3,454	3,344	3,420	3,393	3,422	3,569	3,454	3,575	3,766	3,767	3,710	3,664	3,541
	2025	3,585	3,609	3,570	3,714	3,878								3,671

## 거세 평균경락/수취가격



(단위:원/kg)

년/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21	경락	21,485	21,818	21,967	22,882	23,475	23,971	23,397	23,418	24,147	22,293	22,126	21,758	22,728
	수취	9,776	9,818	9,885	10,320	10,564	10,811	10,552	10,608	10,963	10,143	10,156	9,987	10,299
2022	경락	21,129	20,674	21,357	21,550	21,947	22,234	21,808	22,030	22,225	20,626	19,300	18,252	20,980
	수취	9,762	9,489	9,760	9,870	10,074	10,161	9,966	10,090	10,179	9,550	8,975	8,578	9,704
2023	경락	17,672	18,353	18,203	18,028	18,105	18,462	18,625	19,170	20,594	19,087	18,440	17,988	18,561
	수취	8,270	8,571	8,464	8,419	8,455	8,622	8,661	8,876	9,576	8,933	8,667	8,454	8,664
2024	경락	17,714	17,961	17,355	17,468	16,846	16,715	17,185	18,096	19,454	18,500	18,439	18,833	17,963
	수취	8,396	8,477	8,174	8,227	7,951	7,906	8,077	8,451	9,058	8,640	8,648	8,908	8,461
2025	경락	18,630	18,321	17,985	18,255	18,236								18,285
	수취	8,868	8,702	8,543	8,762	8,735								8,722

A bar chart with three bars of increasing height. A line with circular markers connects the tops of the bars, showing a consistent upward trend.

년/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21	1++	23,592	24,364	24,507	25,464	26,248	26,708	26,025	25,632	26,343	24,962	24,606	24,246	25,121
	1+	21,641	22,003	21,986	22,892	23,545	24,036	23,333	23,366	24,193	22,363	22,051	21,388	22,679
	1	20,415	19,967	20,040	20,710	20,961	21,594	21,192	21,909	22,797	20,746	20,354	19,732	20,896
	2	16,371	15,977	16,102	16,014	15,903	16,421	16,046	16,837	17,827	16,881	16,994	16,849	16,565
	3	13,278	11,750	12,546	12,386	11,941	12,269	12,044	12,933	13,061	12,984	13,842	13,646	12,784
2022	1++	23,690	23,614	23,973	24,238	24,920	25,455	24,872	24,538	24,730	22,960	21,950	20,965	23,652
	1+	20,999	20,403	20,951	20,981	21,459	21,877	21,123	21,448	21,633	20,041	18,708	17,534	20,514
	1	19,419	18,303	18,865	18,444	18,137	18,484	17,995	19,079	19,322	18,079	16,629	15,357	18,149
	2	15,351	14,528	14,665	13,956	13,731	14,119	13,375	14,135	14,380	14,210	13,277	11,175	13,851
	3	11,865	11,174	11,136	10,589	10,450	10,736	9,497	9,399	9,440	10,145	9,830	7,604	10,033
2023	1++	20,398	20,784	20,412	20,530	21,103	21,575	21,551	21,663	22,786	21,378	20,658	20,388	21,129
	1+	17,081	17,725	17,432	17,004	17,128	17,455	17,582	18,294	20,012	18,396	17,738	17,168	17,825
	1	15,066	15,863	15,837	14,745	13,950	14,235	14,754	16,352	18,255	16,986	16,235	15,498	15,709
	2	10,574	11,165	11,521	11,152	10,503	10,991	11,201	12,425	14,168	13,341	13,781	13,256	12,022
	3	6,967	7,617	8,176	8,483	7,718	7,838	7,742	8,712	9,566	9,593	11,157	10,515	8,612
2024	1++	20,185	20,574	19,322	19,674	19,235	19,366	19,952	20,676	22,333	20,830	20,567	21,110	20,372
	1+	16,983	17,384	16,345	16,355	15,511	15,547	16,285	17,397	19,206	18,163	17,833	17,968	17,140
	1	15,096	15,149	14,845	14,696	14,037	13,709	14,184	15,593	16,793	16,307	16,434	16,521	15,308
	2	11,846	11,529	11,506	12,063	11,447	11,141	11,243	11,862	12,909	13,258	13,811	14,063	12,198
	3	9,328	8,730	9,136	9,770	9,364	9,107	9,032	9,358	9,542	10,558	10,919	11,921	9,752
2025	1++	21,341	20,682	20,052	20,286	20,450								20,562
	1+	18,038	17,700	17,333	17,387	17,373								17,566
	1	16,182	16,064	16,306	16,234	15,968								16,151
	2	13,266	13,365	13,710	13,701	13,601								13,529
	3	10,799	10,826	11,052	11,800	11,575								11,210

## 한우산업 주요통계

### 6월 한우 도매시장(공판장) 경락가격 [성별 : 암] 기준 : 6.1~6.24



(단위:원/kg)

등급	전국	농협 도드람	협신 식품	삼성 식품	농협 부천	농협 음성	관성 홍성	농협 포크빌	김해 축공	부경 축공	신흥 산업	농협 고령	창녕 축공	안동 봉화	익산	농협 나주
1++A	21,227	21,522	21,404	21,490	21,659	21,035	23,772	20,977		21,459			19,954	19,090		19,765
1++B	20,454	20,482	20,735	20,201	20,403	20,173	20,912	20,608		20,671			19,550	20,579		18,624
1++C	18,918	19,185	19,245	18,145	18,857	18,788	19,394	18,888		19,062			17,875	19,655		17,660
1+A	17,983	18,229	18,404		18,093	17,859	17,687	18,063	18,063		18,078		13,333	17,635	17,813	
1+B	17,520	17,571	17,848		17,558	17,358	17,443	17,660	17,660		17,600			17,080	17,363	
1+C	16,240	16,102	15,533		15,919	15,912	16,075	16,782	16,782		16,471			15,682	15,752	
1A	16,699	16,962	16,966	16,899	16,484	16,601	16,471	16,851		16,795			16,508	15,694		16,340
1B	16,314	16,347	16,015	15,161	15,903	16,291	15,928	16,398		16,537		15,789	16,136	15,645		15,735
1C	15,034	15,361	13,818	14,260	14,564	14,648	14,470	15,572		15,314		10,855	15,266	14,845		14,322
2A	14,066	14,183	13,969	13,999	13,966	14,212	13,511	13,986		14,211		13,501	13,894	13,441		13,200
2B	13,711	13,961	13,688	13,624	13,576	13,907	13,184	13,614		13,887		11,699	13,541	13,283		12,838
2C	12,844	12,777	12,122		12,700	13,045	12,322	12,692	12,692		13,244		10,615	12,716	12,959	
3A	12,298	12,214	11,963		11,963	12,479	11,823	12,182	12,182		12,609		11,599	12,291	11,795	
3B	11,748	11,931	11,531	10,778	11,384	12,014	11,168	11,860		12,093		10,313	11,484	11,510		10,847
3C	10,808	10,715	10,609	10,500	10,448	11,415	10,531	11,122		10,942			10,082	10,616		10,457
등외	7,087	7,399	7,824		7,287	7,390	6,442	5,858	5,858		7,686		5,111	7,748	5,333	
등외제외	15,834	15,382	14,643	16,167	15,004	16,401	14,856	15,991		16,306		11,597	15,122	14,896		14,229
평균	15,814	15,356	14,622	16,167	14,964	16,394	14,798	15,984		16,296		10,746	15,092	14,828		14,174

### 6월 한우 도매시장(공판장) 경락가격 [성별 : 수] 기준 : 6.1~6.24



(단위:원/kg)

등급	전국	농협 도드람	협신 식품	삼성 식품	농협 부천	농협 음성	관성 홍성	농협 포크빌	김해 축공	부경 축공	신흥 산업	농협 고령	창녕 축공	안동 봉화	익산	농협 나주
1++A	21,227	21,522	21,404	21,490	21,659	21,035	23,772	20,977		21,459			19,954	19,090		19,765
1++B	20,454	20,482	20,735	20,201	20,403	20,173	20,912	20,608		20,671			19,550	20,579		18,624
1++C	18,918	19,185	19,245	18,145	18,857	18,788	19,394	18,888		19,062			17,875	19,655		17,660
1+A	17,983	18,229	18,404		18,093	17,859	17,687	18,063	18,063		18,078		13,333	17,635	17,813	
1+B	17,520	17,571	17,848		17,558	17,358	17,443	17,660	17,660		17,600			17,080	17,363	
1+C	16,240	16,102	15,533		15,919	15,912	16,075	16,782	16,782		16,471			15,682	15,752	
1A	16,699	16,962	16,966	16,899	16,484	16,601	16,471	16,851		16,795			16,508	15,694		16,340
1B	16,314	16,347	16,015	15,161	15,903	16,291	15,928	16,398		16,537		15,789	16,136	15,645		15,735





등급	전국	농협 도드람	협신 식품	삼성 식품	농협 부천	농협 음성	관성 홍성	농협 포크빌	김해 축공	부경 축공	신흥 산업	농협 고령	창녕 축공	안동 봉화	익산	농협 나주
1C	15,034	15,361	13,818	14,260	14,564	14,648	14,470	15,572		15,314		10,855	15,266	14,845		14,322
2A	14,066	14,183	13,969	13,999	13,966	14,212	13,511	13,986		14,211		13,501	13,894	13,441		13,200
2B	13,711	13,961	13,688	13,624	13,576	13,907	13,184	13,614		13,887		11,699	13,541	13,283		12,838
2C	12,844	12,777	12,122		12,700	13,045	12,322	12,692	12,692		13,244		10,615	12,716	12,959	
3A	12,298	12,214	11,963		11,963	12,479	11,823	12,182	12,182		12,609		11,599	12,291	11,795	
3B	11,748	11,931	11,531	10,778	11,384	12,014	11,168	11,860		12,093		10,313	11,484	11,510		10,847
3C	10,808	10,715	10,609	10,500	10,448	11,415	10,531	11,122		10,942			10,082	10,616		10,457
등외	7,087	7,399	7,824		7,287	7,390	6,442	5,858	5,858		7,686		5,111	7,748	5,333	
등외제외	15,834	15,382	14,643	16,167	15,004	16,401	14,856	15,991		16,306		11,597	15,122	14,896		14,229
평균	15,814	15,356	14,622	16,167	14,964	16,394	14,798	15,984		16,296		10,746	15,092	14,828		14,174

### 6월 한우 도매시장(공판장) 경락가격 [성별: 거세] 기준: 6.1~6.24



(단위:원/kg)

등급	전국	농협 도드람	협신 식품	삼성 식품	농협 부천	농협 음성	관성 홍성	농협 포크빌	김해 축공	부경 축공	신흥 산업	농협 고령	창녕 축공	안동 봉화	익산	농협 나주
1++A	21,825	21,598	23,063	21,898	22,203	21,675	22,467	21,669		22,349		21,805	21,051	21,613		20,224
1++B	20,707	20,403	21,534	20,667	20,785	20,589	20,910	20,758		20,885		20,696	20,283	20,961		19,032
1++C	19,369	19,215	19,833	18,762	19,278	19,309	18,702	19,395		19,247		19,486	19,176	19,544		18,759
1+A	18,496	18,636	19,125	17,864	18,755	18,384	18,387	18,547		18,209		18,772	18,533	18,628		17,348
1+B	17,877	17,877	18,195	17,668	17,807	17,716	17,926	18,091		17,551		18,270	18,063	18,417		17,261
1+C	16,706	16,645	16,676	17,242	16,984	16,457	16,437	16,991		16,354		17,029	16,591	17,444		15,681
1A	17,096	17,272	17,057	15,780	17,073	17,232	16,822	17,157		17,191		16,928	16,994	16,701		15,772
1B	16,542	16,668	16,556	15,589	16,450	16,568	16,468	16,652		16,631		16,471	16,631	16,250		15,709
1C	15,413	15,764	14,820		15,653	15,432	15,299	15,700		15,537		15,196	15,286	15,575		15,106
2A	14,260	14,349	14,660	13,753	14,240	14,702	13,711	14,252		14,114		14,015	13,901	13,955		13,504
2B	13,972	14,252	14,023	14,009	13,855	14,418	13,159	13,817		13,899		13,680	13,466	13,891		13,150
2C	13,135	13,098	12,768		12,817	13,482	12,797	13,228		13,379		13,072	12,570	13,565		10,830
3A	12,057	12,040	11,911		12,063	12,628	11,832	12,458		11,967		11,533	12,143	12,259		11,706
3B	11,216	11,799	11,210	9,969	11,227	11,435	10,920	11,727		11,019		10,119	11,081	11,635		11,069
3C	10,355	10,868			10,222					9,390		10,190		8,000		
등외	6,555	5,455			6,468	8,356	6,799	5,083		7,463		5,205	7,286			6,900
등외제외	18,616	18,247	18,720	19,362	18,765	18,951	17,349	18,432		18,778		18,300	18,447	17,978		15,677
평균	18,612	18,245	18,720	19,362	18,761	18,949	17,334	18,426		18,773		18,292	18,433	17,978		15,668

## 한우산업 주요통계

연도	수요(천t)	공급(천t)			1인당 소비량(kg)		자급률(%)	
		계	생산	수입	전체	한우고기	국내산	한우고기
2020	668.1	668.1	248.6	419.5	12.9	4.2	37.2	32.3
2021	716.5	716.5	263.7	452.8	13.9	4.4	36.8	31.8
2022	766.7	766.7	290	476.7	14.9	4.8	37.8	32.8
2023	757.0	757	303.1	453.9	14.7	5.2	40	35.5
2024	756.4	756.4	310.7	445.7	14.6	5.6	41.1	38.5

A bar chart with three bars of increasing height. A line with circular markers connects the tops of the bars, showing a consistent upward trend.

(단위: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21	34,626	26,774	41,272	37,495	39,835	36,991	38,455	37,402	38,746	42,943	39,706	39,018	452,813
2022	39,218	34,349	39,926	36,355	44,669	37,606	43,249	42,067	44,062	36,159	36,726	42,367	476,753
2023	35,649	35,118	43,632	41,615	44,373	39,076	36,508	37,652	31,499	39,393	34,358	35,049	453,922
2024	41,081	27,625	37,769	37,710	35,610	35,925	37,222	38,934	30,916	42,547	40,562	39,823	445,724
2025	34,362	36,163	33,543	41,598	53,033								198,699

A bar chart with three bars of increasing height. A line with circular markers connects the tops of the bars, showing a consistent upward trend.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6	-	-	-	-	-	3,799	3,642	4,318	3,617	3,472	10,579	7,821	37,247
2017	5,154	3,321	5,378	2,959	4,265	6,432	7,239	3,152	7,353	2,227	4,090	4,519	57,061
2018	4,506	5,042	4,340	2,784	5,229	3,801	3,828	5,480	3,996	5,307	6,224	14,708	65,245
2019	7,016	1,951	3,928	3,037	4,937	3,643	4,658	6,897	3,974	4,348	2,719	4,508	51,616
2020	3,075	2,970	4,686	4,723	3,545	5,475	4,579	1,804	4,994	3,227	4,178	5,629	48,882
2021	3,470	3,016	3,142	4,911	2,715	1,446	3,757	2,477	1,383	3,970	3,029	5,448	38,764
2022	1,379	1,473	3,447	4,122	4,077	6,970	4,240	2,756	3,100	4,280	3,434	5,321	44,586
2023	702	3,542	3,509	3,228	4,010	6,652	9,571	12,765	4,598	2,218	3,083	8,296	62,174
2024	5,315	1,310	4,889	3,955	3,102	4,004	2,677	3,632	3,091	4,294	7,528	5,703	49,500
2025	4,588	2,638	2,530	5,135	2,516								17,407



## 등급판정두수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21	암	41,101	19,899	26,095	29,835	26,577	29,952	27,693	33,342	37,564	25,746	26,614	34,400	358,818
	수	1,240	794	612	641	521	616	544	760	1,167	503	465	546	8,409
	거세	54,693	23,486	30,372	32,041	27,247	30,381	27,916	41,040	44,445	34,317	36,154	44,919	427,011
	합계	97,034	44,179	57,079	62,517	54,345	60,949	56,153	75,142	83,176	60,566	63,233	79,865	794,238
2022	암	43,389	16,488	29,416	32,846	33,502	33,114	31,699	53,602	29,197	29,099	34,565	44,958	411,875
	수	1,107	255	444	526	492	409	396	675	559	322	439	419	6,043
	거세	56,627	21,544	34,772	34,798	33,379	31,094	29,970	54,995	31,837	33,543	37,167	51,503	451,229
	합계	101,123	38,287	64,632	68,170	67,373	64,617	62,065	109,272	61,593	62,964	72,171	96,880	869,147
2023	암	41,961	31,799	40,001	36,466	39,899	40,114	37,481	47,197	55,397	29,108	33,221	36,636	469,280
	수	804	334	407	387	344	346	283	383	839	262	321	317	5,027
	거세	45,308	32,383	36,778	33,002	35,524	31,387	30,659	43,954	53,080	34,892	37,687	40,450	455,104
	합계	88,073	64,516	77,186	69,855	75,767	71,847	68,423	91,534	109,316	64,262	71,229	77,403	929,411
2024	암	58,275	28,241	36,084	39,272	41,819	37,153	41,684	53,816	35,948	38,085	33,392	43,541	487,310
	수	669	438	350	370	439	360	343	495	541	317	277	379	4,978
	거세	64,862	30,805	32,949	37,033	36,564	31,433	36,671	55,434	39,889	44,679	37,036	50,769	498,124
	합계	123,806	59,484	69,383	76,675	78,822	68,946	78,698	109,745	76,378	83,081	70,705	94,689	990,412
2025	암	48,734	28,792	31,385	41,041	36,550								186,502
	수	622	268	324	260	362								1,836
	거세	58,575	33,525	33,255	43,833	34,444								203,632
	합계	107,931	62,585	64,964	85,134	71,356								391,970

## 도축두수



연/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21	도축두수	112,973	51,758	71,055	71,169	67,296	70,527	63,612	93,248	92,774	69,980	78,328	91,141	933,861
	한우(암)	41,605	19,466	27,052	29,085	28,041	29,696	26,518	35,422	36,111	25,288	27,837	33,332	359,453
	한우(수)	56,745	23,493	32,276	31,722	29,287	30,511	27,200	44,759	43,784	33,827	38,507	43,868	435,979
	합계	98,350	42,959	59,328	60,807	57,328	60,207	53,718	80,181	79,895	59,115	66,344	77,220	795,452
2022	도축두수	115,136	51,474	74,690	78,730	81,438	73,451	71,308	129,960	67,242	77,987	83,782	109,492	1,002,649
	한우(암)	43,074	18,066	28,595	32,587	34,892	32,200	31,356	56,127	26,772	30,845	34,416	44,466	413,396
	한우(수)	57,157	23,828	33,999	34,988	35,142	30,508	29,917	58,227	29,971	35,987	37,041	51,415	458,180
	합계	100,231	41,894	62,594	67,575	70,035	62,708	61,273	114,354	56,743	66,832	71,457	95,881	871,577

## 한우산업 주요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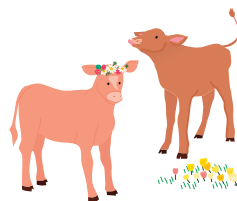
연/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23	도축두수	101,114	76,623	84,834	79,990	90,008	79,168	83,069	103,563	117,483	78,287	79,516	86,914	1,060,569
	한우(암)	42,200	32,341	38,335	36,545	41,687	38,425	39,777	47,294	52,687	31,152	32,374	36,059	468,876
	한우(수)	46,726	33,360	35,035	33,199	37,492	30,314	32,775	44,324	51,733	37,843	36,660	39,894	459,355
	합계	88,926	65,701	73,370	69,744	79,179	68,739	72,552	91,618	104,420	68,995	69,034	75,953	928,231
2024	도축두수	142,549	63,354	79,420	90,715	84,301	76,876	91,687	118,879	88,299	89,771	78,536	110,328	1,114,715
	한우(암)	60,312	26,171	36,205	41,442	39,766	37,193	43,550	52,627	37,475	36,715	32,862	45,621	489,939
	한우(수)	67,822	28,875	33,462	39,807	34,847	31,653	38,617	55,308	42,256	42,805	36,825	54,021	506,298
	합계	128,134	55,046	69,667	81,249	74,613	68,846	82,167	107,941	79,731	79,520	69,687	99,646	996,247
2025	도축두수	112,522	72,123	78,593	95,024	75,861								434,123
	한우(암)	46,290	29,023	33,376	41,364	34,612								184,665
	한우(수)	56,138	33,836	36,082	43,682	33,006								202,744
	합계	102,428	62,859	69,458	85,046	67,618								387,409

## 송아지 마리당 생산비



(단위: 원)

구분	생산비	경영비	부산물수입
2020	3,511,996	2,375,524	35,502
2021	3,780,543	2,619,164	34,395
2022	4,372,372	3,105,827	32,129
2023	4,970,361	3,457,224	57,841
2024	5,092,262	3,435,163	56,812



## 번식우 마리당 사육비



(단위: 원)

구분	사육비(생산비)	일반비(경영비)	자가노동비	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2020	2,666,604	1,816,747	689,984	132,865	27,008
2021	2,787,102	1,940,401	703,424	121,597	21,680
2022	3,119,372	2,223,525	739,909	138,653	17,285
2023	3,419,680	2,390,596	793,063	198,245	37,776
2024	3,356,165	2,276,068	824,031	219,129	36,937





### ▶ 번식우 마리당 수익성



(단위:원)

구분	순수익(A - C)	소득(A - B)	총수입(A)	비용	
				사육비(C)	일반비(B)
2020	517,588	1,367,445	3,184,192	2,666,604	1,816,747
2021	563,415	1,410,116	3,350,517	2,787,102	1,940,401
2022	-409,221	486,626	2,710,151	3,119,372	2,223,525
2023	-1,276,285	-247,201	2,143,395	3,419,680	2,390,596
2024	-1,115,134	-35,037	2,241,031	3,356,165	2,276,068

### ▶ 비육우 마리당 사육비



(단위:원)

구분	사육비(생산비)	일반비(경영비)	자가노동비	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2020	9,328,877	8,196,061	894,712	203,009	35,095
2021	9,922,641	8,790,432	917,786	190,682	23,741
2022	10,337,135	9,141,462	958,575	207,537	29,560
2023	10,211,316	8,876,024	982,400	314,049	38,843
2024	10,066,339	8,623,445	1,002,420	393,210	47,264

### ▶ 비육우 마리당 수익성



(단위:원)

구분	순수익(A - C)	소득(A - B)	총수입(A)	비용	
				사육비(C)	일반비(B)
2020	57,669	1,190,485	9,386,546	9,328,877	8,196,061
2021	292,315	1,424,524	10,214,956	9,922,641	8,790,432
2022	-689,469	506,204	9,647,666	10,337,135	9,141,462
2023	-1,425,825	-90,533	8,785,491	10,211,316	8,876,024
2024	-1,614,214	-171,320	8,452,125	10,066,339	8,623,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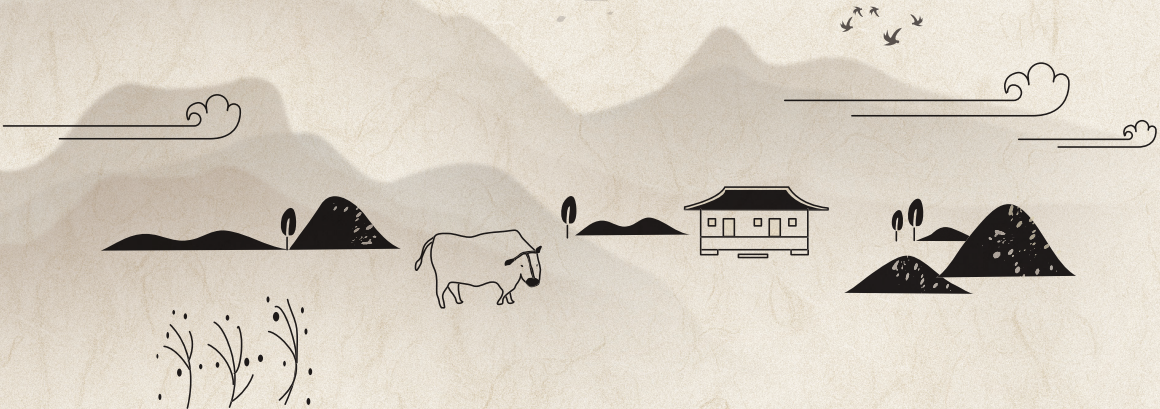
공달, 덩달, 여별달...윤달 이야기

# 걸릴 것 없고 탈도 없는 달

2025년 윤달은 음력 6월로, 양력으로는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해당된다. 윤달은 음력에서 평년보다 한 달이 더 추가된 형태로, 보통 2~3년에 한 번씩 발생한다. 이 윤달은 농업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윤달이 생기면 농사의 주기와 관련하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어나 개장하기 좋은 시기로 여겨진다. 많은 전통에서는 윤달에 행사를 계획하기도 하며, 잡귀나 부정이 없다고 믿어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운을 기대할 수 있다.

출처 : 조선일보, 세계문화예술신문





2025년은 달력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해이다. 음력 날짜로 따지면 양력 1월 29일부터 시작해 2026년 2월 16일에 끝난다. 이 기간 동안 두 번의 입춘이 포함되며, 첫 번째 입춘은 2025년 2월 3일, 두 번째는 2026년 2월 4일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을 쌍춘년이라고 부르며,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 윤달, 날짜와 계절 어그러짐 막기 위해

#### 음력과 양력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현상

윤달은 음력에서 평년의 12개월보다 1개월 더 더해진 달을 뜻한다. 비슷한 표현으로 덤으로 생겼다는 뜻에서 덤달, 여벌로 더 있는 달이란 표현에서 따온 여벌달 등이 있다. 음력 3월 다음에 윤달이 들어 있으면 윤삼월, 4월 다음에 있으면 윤사월이라 한다.

음력으로 따지면 올해는 6월이 한 번 더 찾아온다. 음력 6월 30일(양력 7월 24일)이 지나면 다음 날(25일)부터 또 다른 6월인 ‘윤(閏)6월’이 시작된다. 양력으로 다음 달인 7월 22일(윤6월 29일)까지 30일 동안 이어진다. 윤6월의 새치기 탓에 음력 7월은 평년보다 한 달 뒤로 밀려났다. 시간을 거꾸로 돌린 것도 아닌데 6월은 왜 또다시 찾아왔을까?

윤달이 생기게 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양력과 음력이 어떤 원리로 날짜가 정해지는지 알아야 한다. 양력은 지구의 공전주기(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를 1년으로 삼아 만들어진 달력이다. 지구의 공전주기는 365.24일이다. 음력은 달의 공전주기인 한 달(29.53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달력이다. 음력으로 1년을 계산하기 위해 29.53일을 12개월로 곱하면 354.36일이 된다. 이렇게 되면 양력과 음력 사이엔 약 11일가량 차이가 생기는데, 이는 달이 지구를 12번 돌아도 11일쯤 더 지나야 1년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3년이 흐





르면 양력과 음력 사이엔 약 한 달쯤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해가 더 지나면 계절과도 어긋나는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음력 11월에 태어난 사람이 20년 후엔 반팔을 입고 생일을 맞을 수도 있게 된다. 양력과 음력이 11일씩 차이가 나는 탓에 20년이 흐르면 220일(약 7개월)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해마다 11일을 채워 넣을 순 없다. 달의 공전 주기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옛 사람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 끝에 19년 동안 7번의 윤달을 두게 된다. 이로써 양력과 음력이 거의 일치하게 된다. 결국 윤달은 낱짜와 계절이 어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특별한 새치기'인 셈이다.

## 결혼·출산 꺼리고 장례업계만 '특수'

### 윤달 속설 때문에 '울고 웃는' 업계

조선 후기 세시풍속을 정리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1849년)'엔 '윤달은 택일(擇日)이 필요없어 결혼하기에 좋고, 수의(壽衣·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신에 입히는 옷) 만드는 데 좋아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란 기록이 있다. 우리 조상들은 윤달에 무슨 일을 해도 부정을 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덕분에 결혼이나 이사, 조상의 묘를 정하는 일 등 중요한 일을 윤달에 집중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윤달에 결혼과 출산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속설이 생겼다. 수의를 만들거나 조상의 묘를 옮기는 풍습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유독 결혼과 출산만 피하게 된 것이다. 윤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된 건 중국의 역술인 '당사주(唐四柱·그림으로 보는 사주풀이)'에서 유래한 것이란 설이 유력하다. 당사주에선 윤달을 '비정상적으로 남는 달'이라며 꺼렸다고 한다. 우리나라엔 이런 속설이 와전되면서 '윤달엔 결혼 같은 경사를 치르거나 이사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 같은 속설 탓에 윤달만 되면 웨딩·이사 관련 업계는 울상이 된다. 속설 때문에 결혼이나 이사 자체를 꺼려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장례업계는 함박웃음을 짓는다.





순도 99.9%의 황금으로 제작된 수의가 등장하고, 평상시에 장례용품을 팔지 않던 백화점도 ‘윤달 특수’를 노려 한시적으로 ‘수의 특별전’을 열기도 쉽다. 묘지에서 납골당으로 유골을 모시려는 사람들도 윤달만 되면 곱절로 늘어날 정도라고 하니, 윤달의 속설 때문에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는 셈이다.

### 입춘, 윤달, 쌍춘년...삶에 중요한 의미 문화와 생활에서 음력의 중요성 상기

음력과 양력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 심지어 이사 같은 일상적인 일들까지 음력 달력을 기준으로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은 음력 날짜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년 그 날짜가 바뀌게 된다. 이는 우리의 문화와 생활에서 음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입춘과 윤달, 그리고 쌍춘년은 모두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입춘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절기로, 농사와 관련하여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의미가 크다. 입춘이 지나면 농사를 준비하고, 식물을 심는 등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 된다. 이처럼 달력은 단순히 날짜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소중한



한 자산이다.

또한, 윤달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많은 사람들은 윤달에 태어난 아이들이 특별한 운명을 지닌다고 믿는다. 따라서 윤달에 태어난 아이들은 가족과 사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 문화에서 윤달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킨다. 음력과 양력의 경계를 넘어, 우리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된다. 특히, 쌍춘년과 윤달의 조합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2025년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이다. 음력과 양력, 입춘과 윤달이 만들어 내는 특별한 순간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 한우마당

Hanwoo Journal



전국한우협회 회원 소식지 **한우마당**은

매달 발행되는 월간지입니다.

**한우마당**은 대한민국 전체 한우 사육두수 약 70%에 달하는  
협회 회원과 전후방업계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 광고문의

- 1) 광고 문의 및 접수 : 025251053@daum.net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월간 한우마당」 매체 소개 및 광고신청 안내 참고)
- 2) 광고규격 : 188mm×257mm / 내부여백 7~10mm 필요
- 3) 광고금액 : 홍보팀 문의 (장기계약 우대)  
※ 「한우마당」 광고업체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홍보관 메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원고 및  
광고시안  
마감

## 주요 배부처 및 일정

- 1) 협회 대의원 및 임원 등 지도자, 전국 지회·지부, 일반 회원농가
- 2)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국 각 지자체 축산과
- 3) 전국 수의대학 및 동물생명, 축산학과, 특성화 대학 등
- 4) 전국 농축협 및 관련 유관기관, 한우협동조합, 전문지 언론사
- 5) 사료 기자재 등 한우마당 광고업체



## 구독안내

**한우마당**은 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전국한우협회 홍보팀으로 문의주십시오.

☎ 02)525-1053 (내선 202 또는 218)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https://www.ihanwoo.org>



제26권 제7호(통권 224호) / 2025년 7월 5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민경천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광 고 김재광    제 작 농수축산신문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2층  
전 화 02)525-1053 / 02)597-2377

편 집 김재광  
발 송 자산포스트  
팩 스 02)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카카오톡 채널 검색 > @한우협회  
한우협회 누리집 [www.ihanwoo.org](http://www.ihanwoo.org)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전국한우협회

# 전국한우협회 채널추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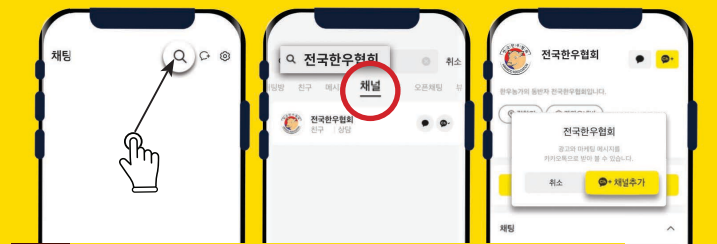
한우산업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친구추가



- ✓ 농가 소식지 한우마당 뉴스
- ✓ 한우산업 정책·제도·사업 동향
- ✓ 협회 활동 사항 및 행사 정보
- ✓ 기타 회원 전용 서비스 제공



STEP1

카카오톡 접속 후  
우측 상단 검색  
표시를 누른다.

STEP2

상단 검색바에  
전국한우협회를  
검색한다.

STEP3

채널 추가 버튼을  
누르면 끝



전국한우협회